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HANEL

J12

IT'S ALL ABOUT SECONDS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2
2023
SUMMER



HISTORY

품격과 명성의 가치를 이어오다

THE CLASS HYOSUNG 20th Anniversary

CLASS-NEW

3세대로 진화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러

The new Mercedes-Benz GLC

AWARD

더클래스 효성, 6관왕 달성

Mercedes-Benz Korea 2022 Dealer Awards

ISSN 2384-0552 7,000원

더클래스 효성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The Class Hyosung

Experience Future with Premium Lifestyle Provider



더클래스 효성은
세계 최고의 명차로 인정받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딜러이며 자동차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라는 트렌드를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 여러분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과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딜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Showroom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 02-575-75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786-6000
송파 전시장 : 02-3434-4000
안양 평촌 전시장 : 031-689-8900
청주 전시장 : 043-299-9000
천안 전시장 : 041-620-7000
구리 전시장 : 031-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 031-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 031-8072-8900
동탄 전시장 : 031-880-02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02-3433-1999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 041-555-5070
Mercedes Café by The Class Hyosung :
031-8072-8902

Service Center 서비스센터

강남대로 서비스센터 : 02-570-1111
서초 서비스센터 :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 02-540-7900
송파 서비스센터 : 02-2152-3333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 031-596-2600
죽전 서비스센터 : 031-786-6100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 031-290-3700
구리 서비스센터 : 031-579-0970
하남 서비스센터 : 02-3433-1900
동탄 서비스센터 : 031-880-0288
청주 서비스센터 : 043-299-9090
천안 서비스센터 :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 Customer Center 1899-0808

AUDEMARS PIGUET

Le Brassus

상상 그 너머의 세계



코드 11.59 바이 오데마피게
스타휠

SEEK BEYOND

오데마 피게 부티크 서울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CONTENTS

THE CLASS
Membership Magazine

VOL.62 Edition
2023 SUMMER



COVER
역대급 진화로 거듭난 6세대
Mercedes-Benz E-Class.
휠베이스를 2cm 늘려
실내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탑재했다.

발행처
더클래스 효성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발행일
2023년 7월 26일
발행인
이철승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남 바 00105
www.theclasshyosung.com
기획 · 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 <THE CLASS>는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해 발행하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 <THE CLAS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 CLASS>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TRO

08 FASHION
환상의 복식조

10 LIQUOR
기대주(酒)

12 WATCH
세계를 누빌 시계



BRAND



14 BRAND STORY
우편부터 통신, 물류 업무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동 우체국

20 HISTORY
품격과 명성의 가치를 이어오다
THE CLASS HYOSUNG
20th Anniversary

22 SPECIAL
Mercedes-Maybach
Night Series

26 TREND
패션으로 만나는 마이바흐
Maybach Exclusive Bag
Collection

30 AWARD
더클래스 효성, 6관왕 달성
Mercedes-Benz Korea 2022
Dealer Awards

34 ISSUE
창립 20주년 기념,
KBS교향악단 초청 공연
Symphony with
The Class Hyosung

36 PREVIEW 1
궁극의 럭셔리 SUV
Mercedes-Maybach
EQS 680 SUV

38 PREVIEW 2
역대급 진화로 거듭난 베스트셀러
Mercedes-Benz E-Class

40 CLASS-NEW
3세대로 진화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베스트셀러
The new
Mercedes-Benz GLC



CONTENTS

BLING



44 TRAVEL WITH BENZ
섬진강 흐르는 구례에서 평화를 만나다

50 GOLF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더클래스 효성 예선전

52 REVIEW
알찬 구성의 가족용 전기 SUV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

56 SCENE
신비로운 대자연의 나라
Mongolia 몽골

62 STAY
상위 0.1%를 위한 최고급 프레스티지 리조트
THE SIENA Resort



BEYOND



66 MASTERPIECE
복되고 길한 반짝임, 금박장 김기호

72 ART
루트비히 미술관 컬렉션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피카소 · 워홀 · 샤갈 한곳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

76 LIVING HERITAGE
천년의 바람이 만든 合作
우리의 여름 부채

80 CURATION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선정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여름 미식
오감으로 여름을 만나다

84 NEWS

90 FOR READERS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완전히 새롭게, 가장 빠르게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더클래스 효성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온라인 스토어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 인증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 인증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 인증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환상의 복식조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와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롤랑 가로스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푹푹 찌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옷차림이 간소해지다 보니 멋을 내는 일도 쉽지 않다. 이럴 땐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여름 액세서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슬릿 하나만 착용해도 전체 패션이 달라 보일 수 있다. 에디터가 주목한 제품은 강건하고 아름다운 프레드의 '포스텐 컬렉션'이다. 바다에서 기원한 제품이라 여름과 더 잘 어울린다. 1966년 첫선을 보인 포스텐 컬렉션은 닻 모티브 버클과 세일링 케이블이라는 소재에 대한 신선한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그 반면 최근에는 취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액세서리로 인기가 높다. 섬세하게 꼬아 만든 총천연색 케이블과 다채로운 버클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종 특별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세계 4대 테니스 오픈 중 하나인 '롤랑 가로스 프랑스 오픈'과 협업한 제품을 내놨다. 롤랑 가로스 테니스 경기장 특유의 적갈색 점토와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얀 선에서 영감받은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버클 옆면에는 테니스공 모티브의 특별한 시그너처를 새겼으며 케이블 끝부분에는 롤랑 가로스 로고를 장식했다. 하나만 둘러도 멋있고, 평소 착용하는 시계와 레이어드해 스타일링해도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듯하다.

Editor 이승률 **Photo** 이수강 **Cooperation** 프레드 02-514-3721

기대주(酒)

발베니의 도전 정신으로 빚은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 캐스크.



발베니는 위스키 애호가들이 특히 사랑하는 싱글 몰트위스키 중 하나다. 지난해 위스키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구하기 힘든 위스키가 발베니였다. 많은 사람이 발베니의 특별함을 알아본 결과일 터. 위스키 애호가들은 특히 발베니의 풍미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 '꿀베니'라는 애칭이 붙었을 정도다. 이런 풍미의 비결은 '도전 정신'이다. 다른 위스키 브랜드가 시도하지 않는 과감한 오크통 숙성을 통해 발베니만의 차별화한 풍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선보인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 캐스크'만 봐도 알 수 있다.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 캐스크는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16년간 숙성한 원액을 프랑스 샤랑트(Charentes) 지방의 한 와이너리에서 '피노 드 샤랑트'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에 추가 숙성한 제품이다. 이 덕분에 아주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녔는데, 코를 갖다 대면 거짓말 조금 보태 꽃밭에 와 있는 듯 진한 꽃향기가 코끝을 파고든다. 이윽고 이어지는 건 와인 오크통에서 비롯한 달콤한 과일 향들. 마지막을 책임지는 건 산뜻하면서도 간결한 피니시로 발베니 위스키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Editor 이승률 **Photo** 이수강 **Cooperation** 윌리엄그랜트앤선즈 코리아 02-2152-1600

The new EQE,
This is for all senses

더클래스 효성에서 메르세데스-EQ 브랜드만의
럭셔리한 디자인과 수준 높은 편의성을 경험해 보세요.



시승 신청

더클래스 효성

instagram.com/theclasshyosung/
youtube.com/@TheClass_Hyosung
facebook.com/ilovetheclasshyosu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강남대로 전시장 02)575-7500 ■송파 전시장 02) 3434-4000 ■분당 정자 전시장 031) 786-6000 ■안양 평촌 전시장 031) 689-8900 ■구리 전시장 031) 579-0900
■용인 수지 전시장 031) 5183-9200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031) 8072-8900 ■청주 전시장 043) 299-9000 ■천안 전시장 041) 620-7000 ■동탄 전시장 031) 880-0200
■인증중고차 하남 전시장 02)3433-1999 ■인증중고차 죽전 전시장 031) 786-6171 ■인증중고차 천안 전시장 041) 555-5070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세계를 누빌 시계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타이머 43mm.



전 세계 24개 주요 도시의 시간을 표시하는 월드 타임 기능은 대륙을 오가는 비즈니스맨을 비롯해 세계를 누비는 여행자들에게 요긴한 시계다. 시원한 청량감이 가득 느껴지는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GMT 월드타이머 43mm'는 폴리싱 및 브러싱 가공한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태양광 패턴과 그러데이션으로 마감한 오메가만의 서머 블루 컬러 다이얼은 방수 기능을 나타내며, 티크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장식하고 라이트 블루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로듐 도금 핸즈와 인덱스를 장착했다. 다이얼 중앙에는 24시간 글라스 링을 배치해 라이트 블루는 낮을, 다크 블루는 밤을 표시한다. 레이저 가공한 그레이드 5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푸른빛 바다에 대륙을 양각으로 새겨 넣은 지구 모습을 담아 한눈에 월드 타임 기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백 케이스에는 삼지창을 든 포세이돈과 두 마리 해마를 묘사한 씨마스터 기념 로고가 스탬핑되어 있다. 이는 오메가의 1956년 오리지널 디자인과 현재 디자인을 나타낸다. 케이스 지름은 43mm, 스위스 계측학연방학회(METAS)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충족하는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38을 탑재해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고, 150m 방수를 보장한다.

Editor 양정원 **Photo** 이수강 **Cooperation** 오메가 02-6905-3301

DUXIANA®

CUSTOMER SERVICE : 02.512.6512~3 WWW.DUXIANA.CO.KR

우편부터 통신, 물류 업무까지

메르세데스-벤츠의 이동 우체국

1938년 오스트리아에 거대한 버스가 등장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든 이동식 우체국으로, 차체 길이가 오늘날 버스보다 긴 14m에 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덩치뿐 아니라 통신 설비 등 당대 최신 기술을 집약했다는 것이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참고 문헌 〈최초의 것들〉(이안 해리슨, 갑인공방)

우편 역사는 인류의 발자취와 궤를 함께한다. 보통 주요 노선을 따라 배치한 전령이나 급사가 릴레이 방식으로 우편을 전달했다. 우편 시스템은 로마제국이 붕괴하면서 사라졌다가 중세 유럽에서 부활했다. 예컨대 1477년 프랑스의 루이 11세, 1512년 잉글랜드의 헨리 8세가 행정 업무를 위한 우편제도를 설립했다. 17세기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했다.

1653년 프랑스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우체국(petite poste)'이 세계 최초로 우편요금 선납제를 도입했다. 편지를 리본이나 종이 끈으로 묶어 우편요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표시했다. 오늘날 쓰는 우표가 나오기까지는 2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1840년 영국의 제네럴 포스트 오피스가 발행한 스티커형 우표, 페니 블랙(Penny Black)이 최초였다.

소포 운반 위해 개조한 대형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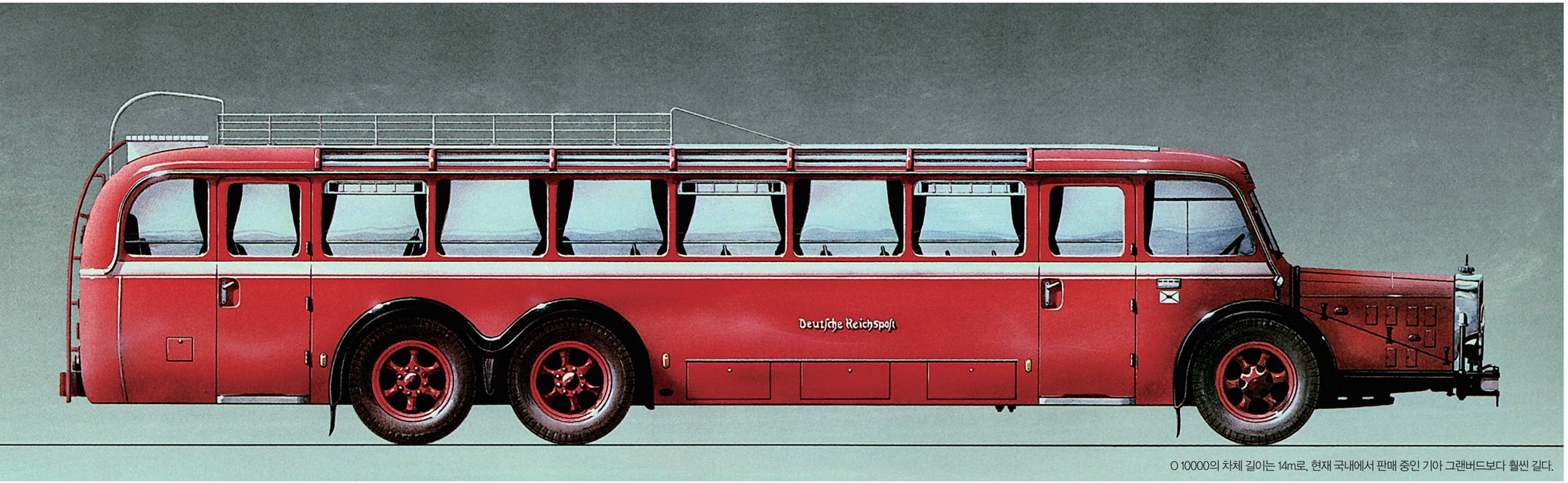
1938년, 오스트리아에서 이동 우체국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에서 가장 큰 버스인 O 10000. 1936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국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전시회(IAMA)'에서 처음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937~1941년 독일 가게나우(Gaggenau)와 진델핑겐(Sindelfingen) 공장에서 총 386대를 생산했다.

85년 전 태어난 메르세데스-벤츠 O 10000의 길이는 14m.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버스 중 가장 긴 기아 그랜버드(12.49m)보다도 길다. 압도적인 덩치와 엔진을 승객실보다 앞쪽으로 뺀 구조 덕분에 최대 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다. 같은 이유로, 부피가 큰 소포를 가득 채워 운반하기도 좋았다. 오스트리아 우편국이 이 버스를 주목한 배경이다.

엔진 또한 거대했다. 개발명 'OM 57'의 직렬 6기통 1만1,197cc 디젤엔진을 얹고 150마력을 냈다. 버스 앞머리와 차폭을 가늠하기 위해 앞 범퍼 좌우엔 원



1938년 오스트리아에 처음 등장한 이동식 우체국.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버스 O 10000을 개조해 만들었다.



O 10000의 차체 길이는 14m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기아 그랜버드보다 훨씬 길다.



이동식 우체국은 전화 부스를 3개나 갖췄고, 국제전화도 가능했다.



소포와 우편물을 수령 즉시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차내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세면대도 있다.



오스트리아 우편국은 이 버스를 빈~잘츠부르크 등 장거리 노선에 운행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동 우체국 버스는 당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다.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차단한 3개의
전화 부스가 좋은 예다.

형 거울이 있는 봉을 달았다. 엔진룸 앞 라디에이터 그릴엔 세 꼭지별을 우뚝 세워 멀리서도 단박에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 거대한 버스는 최대 시속 65km로 달렸다.

노랑과 검정을 조합한 컬러 때문에 언뜻 보면 스쿨버스를 연상시키지만, 실은 제국을 상징하는 색상이다. 15세기 후반 합스부르크 왕조의 막시밀리안 1세가 '투른 운트 탁시스(Thurn und Taxis)' 가문의 상징으로 수여한 컬러다. 이후 이 가문은 제국의 우편 서비스를 인수했고, 1615년에는 황실 우체국장으로 임명받았다.

40여 년 현역 운행 후 박물관 소장

오스트리아 우편국은 초기에 이 버스를 빈~잘츠부르크 등 장거리 소포 운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추가 개조를 통해 이동식 우체국으로 거듭났으며,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40여 년 동안 현역으로 활약했다. 바퀴 달린 우체국 역할 이외에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에 참가해 관람객의 관심을 독차지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의 이동 우체국 버스는 당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다.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차단한 3개의 전화 부스가 좋은 예다. 원하는 숫자에 검지를 꽂고 로터리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를 비치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전화를 걸 수 있었다. 복잡한 케이블은 파티션 안쪽으로 마감해 기능적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

고객의 편지와 소포를 접수하는 직원은 버스 옆 유리를 향해 앉아 사무를 봤다. 창구와 의자를 낮게 세팅하고, 직원이 다리 놓을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버스 밖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다. 전보를 바로 보내기도 편리했다. 창구 책상은 쓰지 않을 땐 접어서 실내 벽면에 수납할 수 있다. 접수한 우편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선반도 갖췄다.

또 스노체인, 공구, 소화기 등 물품도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보관했다. 에어컨은 없었지만 냉장고와 세면대를 갖춰 업무 환경도 배려했다. 덕분에 국영 오스트리아 우편 및 통신 서비스를 이 버스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재 O 10000 이동 우체국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에 자리한 메르세데스-벤츠 뮤지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이동식 우체국은 40여 년 현역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뮤지엄에서 기나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품격과 명성의 가치를 이어오다

THE CLASS HYOSUNG 20th Anniversary

2023년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발전을 거듭한 시간이었다. 그간의 발자취와 오늘날 더클래스 효성을 있게 한 숨은 저력을 알아본다.

Photo 더클래스 효성, 임익순

더클래스 효성은 2003년 창립 이래 비약적 발전을 이루며 쉼 없이 달려왔다.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 전문성을 지닌 세일즈 컨설턴트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어드바이저를 필두로 열정적인 인재들이 이전과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은 고객의 품격과 명성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제공자로서 가장 먼저 미래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딜러사를 목표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숫자로 본 더클래스 효성

2003년
10월 15일
더클래스 효성 창립

10곳
더클래스 전시장

13곳
서비스센터

3곳
인증 중고차

129,000대
차량 누적 판매 대수

571개
보유 자격증

1,100명
더클래스 임직원



From 2003 to 2023 The Class Hyosung's Network History



2004년 5월 1일
강남대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2019년 11월 5일 리뉴얼
– 2019년 12월 27일 전시장 MAR 전환



2007년 10월 10일
분당 정자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2015년 12월 31일 서비스센터 이전 및 명칭 변경(정자동 176 → 죽전동 888)
– 2016년 3월 28일 전시장 확장



2011년 10월 1일
송파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2016년 8월 3일 서비스센터 이전 (방이동 44–5 → 문정동 640–9)
– 2020년 12월 3일 전시장 MAR 전환



2015년 12월 31일
죽전 서비스센터 오픈 및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오픈



2017년 1월 6일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오픈



2019년 2월 28일
구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2021년 1월 20일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오픈



2022년 8월 31일
하남 서비스센터 및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오픈

2004년 1월 1일
도곡 서비스센터 오픈



2005년 7월 19일
서초 서비스센터 오픈
– 2017년 7월 10일 이전 (서초동 1596–8 → 서초동 1597–8)



2011년 7월 1일
안양 평촌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2018년 5월 14일 서비스센터 MAR 전환 및 이전(관양동 900–1 → 관양동 946–1)
– 2021년 12월 27일 전시장 MAR 전환



2013년 10월 28일
청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2016년 4월 1일
천안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2017년 12월 29일
용인 수지 전시장 오픈

2018년 12월 11일
용인 수지 서비스센터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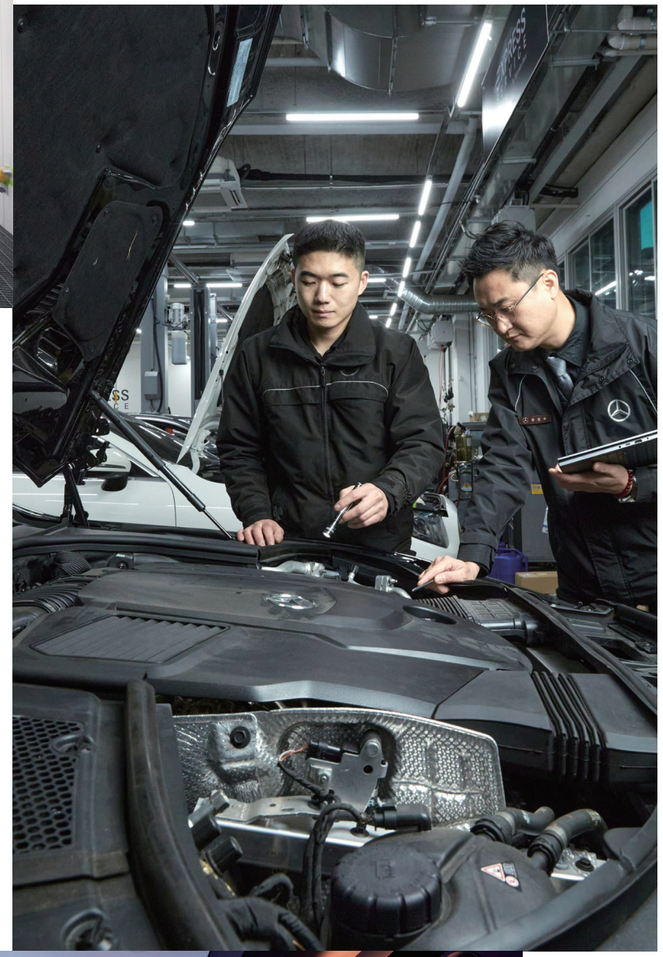
2020년 3월 11일
동탄 전시장 오픈

2020년 3월 19일
동탄 서비스센터 오픈



2022년 3월 4일
신사 서비스센터 오픈





더클래스 효성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

더클래스 효성이 지난 20년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더클래스 효성의 열정적인 직원들 덕분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익히기 위해 테크니션, 어드바이저, 판금, 도장, 부품 관련 등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일즈 자격증을 갖추는 등 서비스 마인드뿐 아니라 기술적 면에서도 글로벌 수준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더클래스 효성이 갖춘 공식 자격증만 해도 571개나 된다. 이러한 노력이 매년 5월 치르는 딜러 어워드를 통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신차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인증 중고차 분야에서 다수의 상을 꾸준히 수상하며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준다.



더클래스 효성을 대표하는 얼굴의 탄생

AMBASSADOR
THE
STARS

앰배서더 '더스타즈'



2023년 3월 31일 더클래스 효성 최초로 공식 앰배서더를 선발했다. 이름하여 '더스타즈'. 이는 더클래스 효성뿐 아니라 딜러사 최초로 운영하는 팀이다. 전시장,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등 더클래스 효성의 각 분야 지원자 중 최고의 실력과 애티튜드를 갖춘 이들로 총 10명이 활동 중이다. 더스타즈는 더클래스 효성과 메르세데스-벤츠를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은 물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더클래스 효성의
앰배서더,
더스타즈의
활약상 바로보기

넘치는 열정과 능력으로 더클래스 효성의 든든한 버팀목

세일즈 마이스터

세일즈 마이스터라는 명성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개인 누적 판매 1,000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해야만 세일즈 마이스터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현재까지 더클래스 효성의 세일즈 마이스터는 강미진 부장, 권장섭 팀장, 문선희 부장, 이기복 부장, (고) 조성규 부장 이렇게 총 5명이다 . 이들이 있기에 더클래스 효성의 빛나는 20년이 있을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세일즈 마이스터를 소개한다.



기본에 강한
세일즈 마이스터
강남대로 전시장
강미진 부장

SALES
MEISTER



더클래스 효성
최다 판매 세일즈 마이스터
천안 전시장
권장섭 부장



더클래스 효성의
새로운 다크호스
강남대로 전시장
이기복 부장



더클래스 효성 최초의
세일즈 마이스터
강남대로 전시장
문선희 부장

Mercedes-Maybach Night Series

“나이트 시리즈는 가장 진보적인 Mercedes-Maybach 패키지예요. 이미 잘 알려진 우리의 미학을 정교하고도 어두운 모티브로 고조시켰죠. Mercedes-Maybach 특유의 진지함을 덜고 장난스러운 반항심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최고디자인책임자 고든 바그너의 말이다. 투톤 컬러로 단장해 패셔너블한 Mercedes-Maybach 삼총사를 소개한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참고 문헌**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문혜정, 1998)



Mercedes-Maybach가 진지하고 근엄한 이미지를 희석시킨 나이트 패키지를 선보였다.



모하비 실버와 옵시디언 블랙의 투톤으로 단장한 Mercedes-Maybach S-Class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문혜정의 연구 논문(1998)에 따르면, 검정은 고대부터 대부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으로 존재해왔다. 복식에서 검정은 위엄성과 우아성, 관능성, 비애성, 금욕성의 다섯 가지 이미지를 상징한다. 1926년 코코 샤넬이 검정 미니드레스로 패션지 〈보그(Vogue)〉의 표지를 장식한 배경에는 어려서 엄격한 수녀원에 맡겨져 바느질을 배운 과거가 있다.
당시 샤넬의 드레스는 “패션계의 T형 포드 자동차”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초창기 모델 T를 검정으로만 만든 배경은 패션과 거리가 멀다. 건조가 빨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페인트 가격 또한 가장 저렴했다. 심지어 헨리 포드(Henry Ford)는 이런 말도 남겼다. “여러분은 어떤 컬러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검정이라면요.”

Mercedes-AMG = 경주차 버금가는 고성능 기호

그런데 Mercedes-AMG의 블랙 시리즈는 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화끈한 고성능’을 의미한다. 배경은 이렇다. 2000년대 초반, Mercedes-AMG(당시엔 AMG)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모터스포츠 헤리티지와 활동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Mercedes-AMG는 메르세데스-벤츠 양산차 기반의 경주차 제작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블랙 시리즈는 당시 AMG 퍼포먼스 스튜디오에서 생산하던 세 가지 라인 가운데 하나였다. 나머지 둘은 시그너처 시리즈와 에디션이었다. “블랙 시리즈의 개념은 레이싱 카와 일반 도로용 고성능 양산차를 잇는 연결 고리였어요. 소수의 수요를 겨냥한 만큼 첫 블랙 시리즈는 한정판이었죠.” 당시 AMG 블랙 시리즈 담당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으로 일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현 북미법인장(왼쪽)과 Mercedes-Maybach를 총괄하는 다니엘 레스코



Mercedes-Maybach의 나이트 시리즈는 Mercedes-Maybach EQS SUV(왼쪽)와
Mercedes-Maybach S-Class(가운데), Mercedes-Maybach GLS(오른쪽) 세 차종에서 선택할 수 있다.



흑백의 강렬한 대조로 단장한 실내. 그 밖에도
다양한 컬러 조합을 고를 수 있다.

외르크 레첼(Joerg Letzel)의 설명이다.

2006~2007년 단 120대만 제작한 Mercedes-Benz SLK 55 AMG Coupe Black Series가 그 주인공이었다. 400마력을 소화하기 위해 섀시를 강화하고 더 큰 브레이크를 장착했다. 그러나 어지간한 마니아가 아니고선 구매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가격이 10만 유로를 넘었고, 멀쩡한 전동식 하드톱을 여닫을 수 없는 탄소섬유 지붕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2008년 Mercedes-Benz CLK 63 AMG Coupe Black Series(700대), 2009년 SL 65 AMG Coupe Black Series(350대), 2012년 SLS AMG Coupe Black Series(300여 대), 2013년 C 63 AMG Coupe Black Series(800대), 2021년 Mercedes-AMG GT Black Series(1,700여 대)가 뒤를 이었다. 최대출력은 730마력까지 치솟았다.

Mercedes-Maybach =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 상징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각), Mercedes-Maybach가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한 행사를 통해 새로운 모델군을 공개했다. 나이트 시리즈(Night Series)다. 밤을 직접 명시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검은색을 의미한다. 앞서 복식 역사에서 검정이 상징한 위엄성과 우아성, 관능성을 강조한 셈이다. 정확히는 Mercedes-Maybach를 살 때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이다.

공식 명칭은 '프로그레시브 나이트 시리즈 패키지(Progressive Night Series Package)'다. "나이트 시리즈는 우리의 미학을 정교하고 어두운 모티브로 한껏 고조시켰어요. 마이바흐가 주는 선입견과 대조적으로 장난스러운 반항심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새로운 스타일이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최고디자인책임자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의 설명이다.

프로그레시브 나이트 시리즈 패키지는 Mercedes-Maybach EQS SUV와 Mercedes-Maybach S-Class, Mercedes-Maybach GLS의 세 차종에 적용할 수 있다. 모두 다크 크롬과 로즈 골드 디테일, 다크 글로시 마이바흐 패턴으로 세련되고 혁신적인 휠 디자인과 내부 헤링본 장식으로 구성했다. 사진의 컬러는 벨트라인 기준으로 위쪽은 모하비 실버, 아래쪽은 옵시디언 블랙의 투톤이다.

그 밖에 회색, 검은색 및 흰색의 다양한 페인트 마감도 고를 수 있다. 또한 파트너 회사인 '마이바흐 아이콘즈 오브 럭셔리(MAYBACH Icons of Luxury)'는 곧 나이트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가방, 운동화, 안경 등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프스타일에 스며든 사용자 경험을 통해 마이바흐 브랜드의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 국내 출시 미정



실내 곳곳에서 Mercedes-Maybach 로고를 찾을 수 있다.

"나이트 시리즈는
우리의 미학을 정교하고 어두운
모티브로 한껏 고조시켰어요.
Mercedes-Maybach가 주는 선입견과
대조적으로 장난스러운 반항심을
자극하는 흥미롭고
새로운 스타일이죠."



세련되고 깔끔한 검정 톤 실내



Mercedes-Maybach 로고를 창식용 패턴으로
활용한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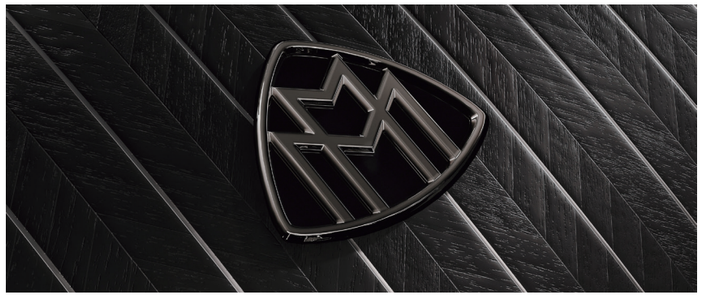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마이바흐가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통해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다. 빌헬름 마이바흐의 증손자가 운영하는 '마이바흐 아이콘즈 오브 럭셔리'가 주인공이다.

패션으로 만나는 마이바흐

Maybach Exclusive Bag Collection

마이바흐의 정체성을 이식한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마이바흐 아이콘즈 오브 럭셔리(MAYBACH Icons of Luxury)에서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과 손잡고 아주 특별한 가방 시리즈를 선보였다. 바로 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백 컬렉션이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불우한 유년기 딛고 자수성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달랐다. 빌헬름 마이바흐(Wilhelm Maybach)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반면 고틀리프 다임러(Gottlieb Daimler)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공통점도 있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자였다. 빌헬름이 있던 고아원 시설에 고틀리프가 관리자로 부임하면서 둘의 인연도 싹을 틔웠다. 고틀리프는 열두 살 어린 빌헬름의 재능을 눈치채고 조수로 삼았다. 이후 둘은 서로 의지하고 시너지를 내는 단짝으로 거듭났다. 빌헬름에게 고틀리프는 아버지처럼 든든한 존재였고, 고틀리프에게 빌헬름은 뛰어난 엔지니어였다. 1886년 둘은 마차에 엔진을 얹은 자동차를 발명했고, 1890년 '다임러 자동차 회사(Daimler Motoren Gesellschaft, DMG)'를 설립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둘은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1900년 고틀리프가 사망하자 빌헬름은 퇴사했고, 이후 1909년 아들 카를 마이바흐(Karl Maybach)와 엔진 제작 회사를 차려 운영했다. 1922년부터는 최고급차도 만들었다. 1960년 다임러-벤츠가 마이바흐를 인수했다. 이후 오랜 세월 마이바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고, 2002년 화려하게 부활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최고급차 브랜드였다. 처음 창업한 이래 100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판매가 저조해 2013년 사라졌다. 2015년 마이바흐는 두 번째로 부활했다. 이번엔 메르세데스-벤츠의 서브 브랜드였다. 오늘날의 메르세데스-마이바흐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마이바흐를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명품 브랜드로 확장하고자 한다.



THE BARREL BAG I

55×24cm 크기의 '더 배럴 백 I(The Barrel bag I)'은 가까운 산이나 활기찬 도시로 떠나는 짧은 주말여행용으로 알맞다. 지퍼가 달린 내부 포켓 2개와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어깨끈이 있어 활용성이 높다. 총 세 가지 색상 조합 가운데 고를 수 있다.



THE BARREL BAG II

'더 배럴 백 II(The Barrel bag II)'는 모든 면에서 기능적이고 편안하다. 2개의 내부 지퍼 포켓과 길이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어깨끈을 갖췄다. 더 배럴 백 I과 디자인 및 색상 조합은 같고, 크기는 35×15cm로 한층 아담하다.



THE BARREL BAG III

'더 배럴 백 III(The Barrel bag III)'는 쇼핑 여행이나 클럽 방문에 이상적이다. 22×10cm 크기로, 현재 더 배럴 백 제품군 중 가장 작다. 하지만 내부 포켓과 길이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어깨끈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과 색상 조합은 같다.



THE COCOON CASE

'더 코쿤 케이스(The Cocoon Case)'는 데일리 비즈니스의 클래식을 자처한다. 내부 지퍼 포켓과 2개의 펜 고리, 칸막이, 길이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어깨끈을 갖추었다. 세 가지 색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술과 혁신, 화려함의 상징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 상징적 브랜드로 거듭난 이름들이 있다. 포드, 포르쉐, 르노, 다임러, 토요타, 혼다 등이 좋은 예다. 그런데 혁신과 기술적 탁월성,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의 절정에 대한 현대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마이바흐가 대표적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마이바흐를 단종시킨 그 시점에 또 다른 부활의 역사가 막을 올렸다.

2013년 독일의 소규모 맞춤 안경 생산업체 IVKO가 빌헬름의 증손자 울리히 슈미트 마이바흐(Ulrich Schmid Maybach)와 계약을 맺고 회사를 세웠다. 안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아우른 '마이바흐 아이콘즈 오브 럭셔리(Maybach Icons of Luxury)'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제외한 브랜드와 로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마이바흐라는 브랜드의 유산과 이름만 소유하고 있어요. 마이바흐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분은 전혀 없지만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성장과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합니다. 이 회사 자체가 우리 가족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형제자매처럼 느껴지거든요." 울리히 슈미트 마이바흐의 설명이다. 2014년 2월, 이 회사는 독일 베를린에 첫 부티크를 열었다. 현재 독일 뮌헨과 뉘르부르크링, 포르투갈 포르투, 아부다비, 두바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폴란드 크라쿠프 등 8개 부티크를 운영 중이다. 울리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면서 격월로 독일에서 2~3주를 보낸다. 2003년부터 형제들과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인도 만들고 있다.

명품의 가치와 디자인 언어의 결합

4월 27일, 마이바흐 아이콘즈 오브 럭셔리가 메르세데스-벤츠 디자인과 손잡고 '디자이어 컬렉션(Desire Collection)'을 선보였다. 안목 높은 고객을 위한 고품질의 진보적 가방 시리즈다. "럭셔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아름다움과 비범함을 향한 열망을 구현했어요." 메르세데스-벤츠 최고디자인책임자 고든 바그너(Gorden Wagener)의 설명이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철학은 '세련된 럭셔리'다. 이 가치는 디자이어 컬렉션의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또 기본 형식이나 원칙과의 조화 및 장인 정신의 완벽한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솔기와 지퍼에 공을 들이고, 가방 내부 역시 최고의 수작업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며, 독점적으로 개발한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해 두 브랜드의 제휴를 강조했다.

'마이바흐 익스클루시브 백 시리즈'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공장이 아닌 아틀리에와 협력해 만든다. 가죽 일부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가져오지만, 제작은 대부분 독일에서 한다.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의 정수와 진보적 가치를 겸비한 디자이어 컬렉션은 전 세계 마이바흐 부티크와 파트너 상점, 온라인 숍(www.maybach-luxury.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THE COCOON BAG I

백팩이나 크로스보디 백으로 착용할 수 있는 '더 코쿤 백 I(The Cocoon Bag I)'은 두 가지 업무 약속 사이에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중요한 도구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조절 및 분리 가능한 2개의 어깨끈이 유연성을 제공한다. 색상 조합은 세 가지다.



THE COCOON BAG II

19×32cm 크기로, 약간 작은 버전인 '더 코쿤 백 II(The Cocoon Bag II)'는 매일의 완벽한 동반자다. 크로스보디 백은 내부 지퍼 포켓, 펜 루프, 길이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갖췄다. 나머지 더 코쿤 백과 동일한 세 가지 색상 조합 중 고를 수 있다.



THE COCOON BAG III

'더 코쿤 백 III(The Cocoon Bag III)'는 최고의 디자인 기준을 24×11cm로 집약했다. 현대적 크로스보디 백 또는 벨트 백에 대한 해석으로 내부 지퍼 포켓과 길이 조절 및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이 있다. 다른 두 가방처럼 세 가지 색상 조합으로 선보인다.

더클래스 효성,
6관왕 달성

Mercedes-Benz Korea 2022 Dealer Award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주최한
2022 딜러 어워드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최고의 파트 팀 등 10개 부문 14개의 어워드를 석권하며
뛰어난 서비스 품질과 세일즈 역량을 인정받았다.

Photo 더클래스 효성





지난 5월 1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국내 11개 공식 딜러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2 딜러 어워드'를 개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접점의 최전방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의 노력을 격려하고, 세일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매년 딜러 어워드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의 딜러십'을 비롯한 3개 딜러십 부문을 포함해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 '최고의 일반수리팀' 등 총 28개 부문에서 임직원 개인 또는 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더클래스 효성

더클래스 효성은 2022 딜러 어워드에서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14개 어워드를 수상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과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먼저 안양 지역 최초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인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가 2년 연속 '최고의 파트 팀(Best Parts Team)'으로 선정되며 저력을 과시했다. 강남대로 전시장 최요한 과장은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_챔피언스 리그(Best Sales Consultant_Champions League)' 어워드를 수상했고 '최고의 파이낸스 세일즈 컨설턴트_챔피언스 리그(Best Finance Sales Consultant_Champions League)' 2위와 '최고의 플리트 세일즈 컨설턴트(Best Fleet Sales Consultant)' 3위에 올랐다. 용인 수지 전시장 김동권 부장은 '최고의 EQ 세일즈 컨설턴트(Best EQ Sales Consultant)'에 선정됐다.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정은동 차장 역시 2년 연속 '최고의 퍼처싱 매니저(Best Purchasing Manager)'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천안 전시장의 권장섭 부장은 2021년 딜러 어워드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_슈퍼리그(Best Sales Consultant_Super League)'에 선정됐으며, '최고의 플리트 세일즈 컨설턴트(Best Fleet Sales Consultant)'도 함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 '최고의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세일즈 컨설턴트(Best Mercedes-Benz Certified Sales Consultant)' 부문에서는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의 추한종 차장이 2위, 박찬영 과장이 3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AS 매니저(Best AS Manager)' 부문에서는 죽전 서비스센터의 윤성준 이사가 2위, '최고의 서비스 어드바이저(Best Service Advisor) 보디 앤 페인트(Body & Paint)' 부문에서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한수환 차장이 2위에 올랐다. 팀 부문 시상에서는 송파 서비스센터가 '최고의 사고 수리 팀(Best Accident Repair Team)' 2위를, 죽전 서비스센터는 '최고의 파트 팀(Best Parts Team)' 3위를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클래스 효성 임직원이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을 거뒀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세일즈 컨설턴트와 테크니션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딜러 어워드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2023년 역시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과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만족감을 선사하는 더클래스 효성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Mercedes-Benz Korea
2022
Dealer
Awards

개인 부문



Best Sales Consultant_Champions League **1st** &
Best Finance Sales Consultant_Champions League **2nd**
& Best Fleet Sales Consultant **3rd**

최요한 과장
강남대로 전시장 영업2팀



Best Sales Consultant_Super League
& Best Fleet Sales Consultant
1st

권장섭 부장
천안 전시장 영업4팀



Best
EQ Sales Consultant
1st

김동권 부장
용인 수지 전시장 영업4팀



Best
Purchasing Manager
1st

정은동 과장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Best Mercedes-Benz
Certified Sales Consultant
2nd

추한종 차장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Mercedes-Benz Korea
2022
Dealer
Awards

팀 부문





Best Mercedes-Benz
Certified Sales Consultant
3rd

박찬영 과장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Best
AS Manager
2nd

윤성준 이사
죽전 서비스센터



Best Service Advisor
'Body & Paint'
2nd

한수환 차장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Best
Parts Team
1st

안양 평촌 서비스센터



Best
Parts Team
3rd

죽전 서비스센터



Best
Accident Repair Team
2nd

송파 서비스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KBS교향악단 초청 공연

Symphony with The Class Hyosung

자동차와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났다.
더클래스 효성이 KBS교향악단과 함께 특별한 연주회를 선보이며 여름밤,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Photo 더클래스 효성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행사 모습



클래식, OST,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 KBS교향악단


객석을 무대 가까이 배치해 청중이 연주자의 호흡까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지난 7월 6일, 더클래스 효성 강남대로 전시장은 아름다운 교향악의 멜로디로 가득 찼다. 더클래스 효성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KBS교향악단이 특별 공연을 펼치는 중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클래스 효성의 고객 50여 명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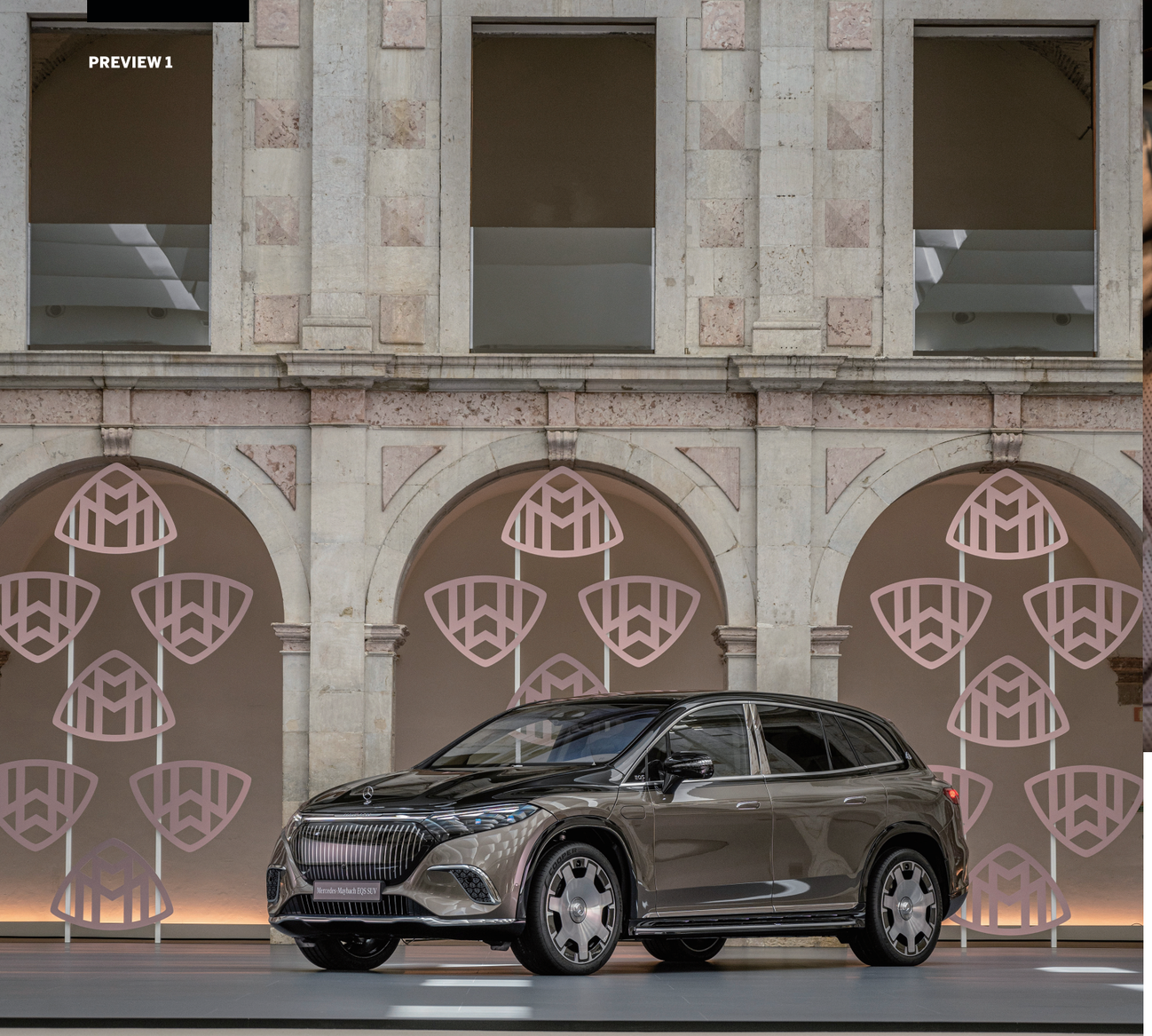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더클래스 효성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KBS교향악단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클래스 효성과 KBS교향악단은 2022년 8월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고객 만족도 증진과 국내 클래식 문화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날 KBS교향악단은 양영은 KBS 기자의 곡 해설과 더불어 피아졸라 '리베르탱고'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OST를 비롯해 김광민의 'The Way to School(학교 가는 길)'과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며 청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음악회 중반부터는 KBS교향악단이 자랑하는 첼리스트 정세은 단원의 바흐 '첼로 무반주 모음곡 1번'을 시작으로 바수니스트 정순민 단원의 빌 더글러스 '찬가', 플루티스트 전서영 단원의 클로드 볼링 '아일랜드의 여인' 등 개인 무대가 연이어 펼쳐졌고, 각 악기만이 지닌 매력과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기업과 문화 예술 단체가 선보인 모범적인 컬래버레이션

앙코르곡을 포함해 총 열두 곡을 연주한 KBS교향악단은 더클래스 효성과 함께 '기업과 문화 예술 단체가 함께하는 모범적인 협업'을 선보였으며, 더클래스 효성 EQ 세일즈 컨설턴트가 직접 차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고객들이 더클래스 효성에 보여준 애정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03년 10월 설립한 더클래스 효성은 끊임없는 투자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로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간 고객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클래식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다. 이 밖에 다양한 분야의 공연 관람 기회 를 제공해 차량뿐 아니라 여가 생활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궁극의 럭셔리 SUV

Mercedes-Maybach EQS 680 SUV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SUV의 진정한 꼭짓점이 등장했다. 바로 Mercedes-Maybach EQS 680 SUV다. 메르세데스-벤츠 EQS SUV를 밑바탕으로 하되 마이바흐 고유의 디자인 요소와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실내, 식물성 무두질 나파 가죽 등 상징적 요소로 가득하다. 다재다능하면서도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SUV의 끝판왕을 만나본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뒷좌석. 샴페인 잔도 빠질 수 없다.


56인치 MBUX 하이퍼스크린에도 마이바흐 모드를 마련했다.


최저 지상고만 높을 뿐 기함의 안락한 뒷좌석 그대로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1977년 9월 15일,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산악인 고상돈이 무전으로 남긴 말이다.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꼭짓점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자동차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전기 SUV로 범위를 좁히자면, 초점은 딱 한 차종으로 모인다. 바로 Mercedes-Maybach EQS 680 SUV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Mercedes-Maybach EQS 680 SUV가 완전히 새로운 차는 아니다. 최근 순차적으로 나온 Mercedes-EQ 시리즈와 Mercedes-Maybach EQS 580의 파생 차종이다. 하지만 Mercedes-Maybach EQS 680을 각인한 기함의 상징성이 기대를 자극한다. 실제로 디테일을 꼼꼼히 살펴보면 놀라운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끝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호화로운 마감과 첨단 장비

Mercedes-Maybach는 M을 2개 겹친 고유 엠블럼을 쓴다. 이걸 명품 백 로고 패턴처럼 앞 범퍼의 흡기구 자리에 빼곡하게 새겼다. 또한 각 도어에서 바닥을 밝히는 조명, 사이드 스텝, 실내 카펫, 시트 머리 쿠션, 가속과 제동 페달 등 곳곳에 배치해 정체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보닛과 휠 등엔 세 꼭지별을 달아 메르세데스-벤츠 식구란 사실 또한 강조했다.

Mercedes-Benz EQS SUV와 차이점은 이 밖에도 많다. 차체는 위아래 투톤으로 칠했으며, 그릴에 수직 핀을 빼곡히 심고, 옆 유리 윤곽과 B 필러에 크롬을 씌워 전반적으로 '블링블링'하다. 금속성 광택을 내며 차체 네 귀퉁이의 아치를 채운 21인치 또는 22인치 단조 휠도 새롭다. 실내는 커피콩 껍질로 무두질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나파 가죽으로 씌웠다.

좌우 앞좌석과 중앙을 뒤덮은 너비 1.41m, 56인치의 MBUX 하이퍼스크린에는 마이바흐 모드를 마련했다. 단 두 명만을 위한 뒷좌석은 중앙 팔걸이에 탈착식 태블릿 1개와 접이식 테이블 2개를 숨겼다. 좌우 앞좌석 뒤엔 각각 11.6인치 모니터를 달았다. 64컬러, 253개 LED로 구현한 간접조명은 빛의 융단을 이뤄 실내를 가로지르며 흐른다.

심장은 2개의 전기모터로, 앞뒤 차축에 각각 얹는다. 최대출력 484kW(약 650마력), 최대토크는 96.9kg·m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 4.4초, 최고속도 시속 210km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차체를 최대 35mm 더 높일 수 있다. 운전 모드엔 기존의 컴포트를 대신할 마이바흐 모드를 더했다. 뒷좌석의 쾌적한 승차감에 올인한 맞춤 프로그램이다.



역대급 진화로 거듭난 베스트셀러

Mercedes-Benz The new E-Class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세단 E-Class가 개발명 W124의 6세대로 진화했다.
클래식한 3박스 세단 형태로, 휠베이스를 이전보다 2cm 키워 한층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Mercedes-Benz The new E-Class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해 6세대 신형으로 진화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세단 E-Class가 개발명 W214의 신형으로 거듭났다. 1993년 개발명 W124부터 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름으로만 헤아려도 6세대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장대로, 1953년 W120을 뿌리로 보면 70년 이상 11세대에 걸쳐 진화해온 셈이다. 전 세계 E-Class 세단 판매 1위 시장은 한국이다. 그만큼 신형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Mercedes-Benz The new E-Class의 핵심은 '전동화'와 '디지털화'다. 유럽 시장의 경우 전체 판매 중 절반을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이후 PHEV)가 차지할 전망이다. "이번 Mercedes-Benz The new E-Class는 디지털 혁신으로 훨씬 더 지능적이며, 새로운 차원의 개인화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개발 및 조달 부문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마르쿠스 셰퍼(Markus Schäefer)의 설명이다.

아낌없이 들어간 최신 디지털 기술

겉모습은 전통과 현대를 녹여 넣었다. 전체 실루엣은 전통적인 3박스 세단에 충실하다. 차체 크기에 따른 라인업의 서열과 분류가 명확한 메르세데스-벤츠답게 세대교체를 명분 삼아 선심 쓰듯 덩치를 키우진 않았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2cm 늘린 2,961mm의 휠베이스로 뒷좌석 공간을 더 확보했다. 차체 옆면은 위아래로 나눈 캐릭터 라인으로 흐름을 잡았다. 헤드램프는 세 꼭지별 심은 어떤 차종에서도 볼 수 없던 모양. 전통적인 구성에 변주를 주되 Mercedes-EQ 그릴과의 연결 고리도 챙겼다. 뒷모습은 Mercedes-Benz S-Class를 오마주했는데, 점등 부위로 세 꼭지별을 형상화했다. 이 같은 자신감과 파격이야말로 메르세데스-벤츠의 개성이자 장기다. 또한 빤한 예상을 보란 듯이 뒤엎는 디자인 변화로 상큼한 자극을 준다. 실내엔 MBUX 슈퍼스크린을 옵션으로 장착했다. 디지털 계기판과 별도로 중앙과 동반석 A필러까지 연결한 대형 디스플레이다. 동급 최초로 버튼만 눌러 3D(입체) 화면으로 바꿀 수 있다. 간접조명은 옵션으로 비트에 따라 변화하는 사운드 시각화 기능까지 챙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정차 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디지털 키로 쓸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E 200)과 디젤(E 220 d)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PHEV(E 300 e/E 400 e)로 구성했다. Mercedes-Benz E 300 e의 경우 직렬 4기통 2.0L 204마력 엔진에 129마력짜리 전기모터를 엮어 약 313마력을 낸다.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 시스템도 고를 수 있다. 역대급 진화로 거듭난 Mercedes-Benz The new E-Class는 내년 초 국내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동반석까지 아우르는 MBUX 슈퍼스크린을 옵션으로 마련했다.

3세대로 진화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베스트셀러

The new Mercedes-Benz GLC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종 중 가장 많이 팔린 Mercedes-Benz GLC가 3세대 신형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디자인 테마를 녹여 넣어 안팎을 완전히 바꿨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각종 정보를 띄우고, 모든 파워트레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짝지었다.

Writer 김기범 Photo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SUV인 Mercedes-Benz GLC가 신형으로 진화했다. 시작점은 2008년 데뷔한 Mercedes-Benz GLK. 이름은 포지셔닝을 암시한다. 독일어 'Geländewagen Luxus Kompaktklasse'의 약자로, 'SUV 럭셔리 콤팩트 클래스'라는 뜻이다. Mercedes-Benz C-Class와 플랫폼을 나눠 국내에선 중형으로 분류한다. 2015년 세대교체하면서 Mercedes-Benz GLC로 거듭나 기반으로 삼은 차급임을 명확히 했다.

개발명 X254의 The new Mercedes-Benz GLC는 Mercedes-Benz GLK부터 헤아리면 어느덧 3세대째다. 지난해 5월에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했고, 지난달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Mercedes-Benz GLC는 럭셔리 중형 SUV 세그먼트의 강자다. 2008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260만 대 이상 팔렸다. 지난 2년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의 라인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전후좌우
기울기와 나침반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램프는 새로운 디자인 테마로
다듬어그릴과 연결했다.


테일램프는 키조개처럼 매끈하게
빚고 좌우를 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디자인
테마로 거듭난 실내



메르세데스-벤츠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Mercedes-Benz GLC가
3세대 신형으로 거듭났다.

젊고 역동적 분위기로 거듭나다

The new Mercedes-Benz GLC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 디자인 테마로 거듭났다. 좌우 합쳐 260만 픽셀의 디지털 라이트를 품은 헤드램프는 한층 날렵하게 다듬었고, 테일램프는 좌우를 기다랗게 이었다. 또 전반적 비율이 한층 젊고 역동적이다. 차체를 이전보다 55mm 늘리는 등 덩치를 좀 더 키웠으며, 동시에 공기저항계수는 이전보다 0.02 개선한 0.29Cd를 자랑한다.
실내도 완전 새롭다. 대시보드 위쪽엔 항공기의 엔진 덮개인 나셀(nacelle)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송풍구를 심었다. 날렵한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너머엔 12.3인치 고해상도 LCD 계기판과 대시보드 중앙엔 11.9인치 터치스크린을 마련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2세대 버전을 갖춰 보다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
시트도 머리 받침과 등받이를 연결한 새 디자인으로 더욱 스포티한 분위기다. 이전 세대보다 휠베이스를 15mm 늘려 뒷좌석 공간을 넓혔고, 트렁크 공간 또한 70L 늘어 뒷좌석을 접어 최대 620L까지 확장할 수 있다. 뒷좌석용 사이드를 포함해 에어백은 총 10개를 품었다. 간접조명과 열선 운전대, 열·소음 차단 유리, 앞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도 기본이다.
The new Mercedes-Benz GLC의 파워트레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품는다. 국내시장엔 The new GLC 220 d 4MATIC AVANTGARDE(아방가르드)와 The new GLC 300 4MATIC AMG Line을 우선 출시한다. 모두 사륜구동과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를 기본으로 갖췄고, 뒷바퀴 조향과 에어 서스펜션은 옵션으로 고를 수 있다.



덩치를 키웠지만 공기저항계수는
오히려 개선했다.

섬진강 흐르는 구례에서 평화를 만나다

한여름 큰 나무는 짙은 그늘을 만들어 지친 마음 쉬어 가게 하네. 흐르는 강물에 상념을 띄워 큰 바다로 흘려보내면 우리의 다음 계절엔 수확할 것이 많으리.

Editor 정상미 Photo 이효태

암벽 위 신비로운 사찰, 사성암

녹음이 우거진 도로를 달린다. 차창 밖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나무 그늘이 짙으니 운전자도 느긋한 마음으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달려 다다른 전남 구례. 봄이면 섬진강 벚꽃길을 보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 유명한 화개장터가 구례 동쪽 끝자락 토지면과 이웃하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자리해 주말이면 곳곳이 여행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구례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 해발 541m의 오산에 자리 잡은 사성암이다. 1800년 발간한 구례향교 〈봉성지〉에는 오산의 경관에 대해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고 기록돼 있다. 오산 정상부의 암벽에 지은 사성암은 아래에서 봐도 그 위에서 봐도 절묘하다. 한차례 비가 온 뒤라 전각 위에 운무는 짙고, 불경 외우는 소리는 잠시 속세를 벗어난 깨끗한 마음이 들게 한다. 의상 · 원효 · 도선 · 진각 이들 4명의 고승이 수도한 곳이라 하여 사성암이라 이름 지은 이 사찰은 백제 성왕 22년(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했다. 연기조사는 인도의 승려이자 한국 불교 화엄종의 시조로서 오산의 사성암을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 울산 가지산 석남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사찰을 세웠다.

돌계단을 따라 사성암에 오르면 주불전인 유리광전이 나타난다. 이곳에 서면 발아래 큰 날개를 편 듯한 섬진강과 구례의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다. 유리광전에는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마애여래입상이 모셔져 있다. 높이가 3.9m에 달하는 마애여래입상은 상투를 튼 머리에 뭉툭하고 큰 코, 두툼한 입술, 턱까지 내



오산 정상에 자리한 사성암
사진속 차량 모델은 Mercedes-EQ EQE 300



운우가 내려앉은 사찰이 신비롭다.


주불전인 유리광전에 이르는 돌계단


섬진강 대나무 숲길

려온 귀에 둥근 어깨, 주름이 촘촘한 옷이 전체적으로 푸근해 보인다. 가슴께에 위치한 오른손은 약지가 구부러져 묵묵한 입매 대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고, 오른손에는 중생의 목마름을 해소해준다는 감로주를 든 듯하다. 옷이 다 젖도록 해발 541m의 산 정상까지 올라와 소원을 빌었을 옛사람들을 그려본다. 가히 고승이 그렸다고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암벽에 새겨진 불상을 지그시 바라본다. 선한 마음을 먹은 사람조차 닿지 못할 평화가 저 손끝에 있는 것이다.

대나무 숲 우거진 섬진강에 수달도 산다

사성암 건너편은 젊은 세대에게 인스타 성지로 입소문 난 섬진강 대나무 숲길이다. 17번 지방도의 섬진강 변에 직선으로 600m에 걸쳐 이어지는 대숲길은 '전라남도 언택트 관광지 50선'에 선정될 만큼 숨은 명소였으나, 현재는 일대 경관이 크게 개선되며 젊은 여행객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원래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사금을 채취한 금광촌이 있던 곳으로 모래가 유실되고 샛강이 황폐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주민들이 대나무를 심으며 오늘의 모습으로 거듭났다.

대숲에는 한여름 개화하는 수국의 자취도 남아 있다. 지난 2020년에 닥친 수해로 대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구례군에서 총 5종 3,100여 그루의 수국을 심은 까닭이다. 당해의 수해는 수국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갓꽃도 생겨나게 했다. 홍수로 갓씨가 흘러들어 대숲 일대에 길이 500m, 면적 6,300㎡의 갓꽃 군락지가 형성된 것. 노란 갓꽃이 4월의 대숲을 물들이기 시작하면 초여름 수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고, 올곧이 뻗은 대나무는 바람에 제 몸을 맡긴 채 한들한들 그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천연기념물(제330호) 수달이 살 수 있는 1급수 맑은 강물, 흐르





섬진강어류생태관과 만나는 둑방길의 인도교



섬진강 수달 서식지 생태 · 경관 보전지역의
탐방안내소에서 벤츠 Mercedes-EQ EQE 300

는 섬진강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행객은 구례까지 오길 잘했다는 생각만 든다. 남한의 5개 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섬진강은 길이 212.3km, 유역 면적 4,896.5km²로 전북 남동부에서 시작해 전남 북동부, 구례를 중류로 하여 곡성을 지나 남원 시내를 관통하는 요천과 합류한다. 구례 월전리에서 금내리, 금정리에 이르는 5.4km 구간은 섬진강 수달 서식지 생태 · 경관 보전지역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일대 생태 탐방로와 둑방길, 황톳길이 조성되어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861번 지방도를 따라 달리면 이곳 수달 서식지를 통과하게 된다. 탐방안내소가 있는 곳부터 섬진강 변을 따라 덱(deck) 길이 조성되어 있고, 섬진강을 에워싸듯 지리산의 아름다운 능선이 펼쳐져 평온함이 깃든다. 생태 탐방로의 둑방길로 걸어 나가면 섬진강어류생태관과 이어지는 하얀색 인도교도 시선을 끈다. 어쩌면 수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섬진강 변 이곳저곳을 탐했지만 끝내 수달은 만나지 못했다. 하긴 이렇게 쉽게 제 모습을 보여주면 야생동물이 아닐 것이다. 못내 궁금한 수달은 간전면 향천리 일원에 조성된 수달생태공원과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눈높이 학습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제26회 더클래스 효성 아마추어 골프 대회

MercedesTrophy 2023 The Class Hyosung 예선전

골프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고객 초청 골프 대회다. 필드 위 햇살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으로 떠나보자.

Photo 더클래스 효성



144명이 참가해 치른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더클래스 효성 예선전은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8명이 본선에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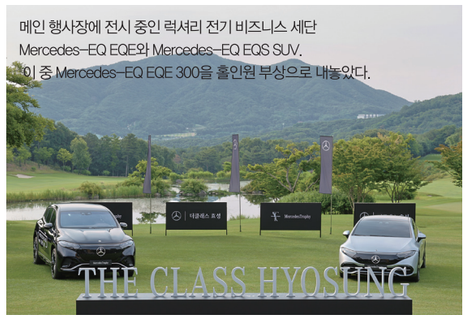
메르세데스 트로피 대회가 꾸준히 치러지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웰링턴CC의 행사장 전경



리셉션 중앙에 전시한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더클래스 효성 예선전 수상자에게 증정할 트로피



연습 홀에서 원 포인트 레슨이 한창 진행 중이다.



메인 행사장에 전시 중인 럭셔리 전기 비즈니스 세단
Mercedes-EQ EQE와 Mercedes-EQ EQS SUV.
이 중 Mercedes-EQ EQE 300을 홀인원 부상으로 내놓았다.

매년 5~6월이면 더클래스 효성의 아마추어 골퍼 고객들은 필드로 모인다. 경기도 이천 웰링턴CC에서 열리는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MercedesTrophy 2023) 더클래스 효성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28일 올해도 어김없이 웰링턴CC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번 예선전에 참가한 고객은 144명. 8월에 치르는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내셔널 파이널'에 참가하기 위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다. 메르세데스 트로피는 전 세계 메르세데스-벤츠 오너를 위한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로 한국 대회 예선은 더클래스 효성이 진행하고 있다.

웰링턴CC 행사장에는 Mercedes-EQ의 럭셔리 전기 비즈니스 세단 Mercedes-EQ EQE와 Mercedes-EQ EQS SUV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더클래스 효성 이철승 대표이사의 시타로 문을 연 이번 대회는 18개 홀에서 동시에 샷 건(shot gun) 플레이로 시작, 신페리오(new perio) 방식을 통해 성적을 산출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한 라운드에서 우수한 스코어를 낸 아마추어 골퍼 8명이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3 내셔널 파이널에 참가하게 됐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번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웰컴 패키지와 다양한 후원사 이벤트, 연습 그린 내 원 포인트 레슨 등을 마련했으며, 특히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고객에게 보다 다채롭고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20m 퍼팅 이벤트, 20주년 컬렉션 판매 이벤트 등을 실시했다. 또 홀인원 기록자를 위해 Mercedes-EQ EQE 300 차량을 홀인원 경품으로 내걸었다. 이번 대회는 더클래스 효성이 지향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고객과 더욱 깊이 있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알찬 구성의 가족용 전기 SUV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

EQB는 Mercedes-EQ의 두 번째 콤팩트 SUV다. Mercedes-Benz GLB의 이란성쌍둥이로, 전기차로 거듭나면서 Mercedes-EQ 특유의 디자인 요소와 소재를 절묘하게 버무려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앞뒤 각각 물린 전기모터 2개가 총 228마력을 네 바퀴로 나누고, 1회 충전으로 313km를 주행할 수 있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Photo** 서동현(〈로드테스트〉 기자)



Mercedes-EQ The EQB의 앞모습은 Mercedes-EQ의 패밀리룩인 검은색 그릴로 단장했다.

인파와 차량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심야의 도심. 전기차 시승하기에 이만한 조건도 없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을 달리는 지금, 귀는 먹먹하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은 매끄럽다. 시승차는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 최대 7명을 태울 수 있고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은 사륜구동 SUV다. 최근 유행하는 자동차의 필요충분조건을 빠짐없이 갖췄다.

EQB는 Mercedes-Benz GLB의 이란성쌍둥이다. 사실 엔진을 얹은 GLB도 훌륭한데, 가격이나 위상보다 더 넓은 공간을 약속하는, 이른바 알짜배기다. 그렇다면 과연 심장을 전기로 바꿔도 그 매력과 가치는 여전할까?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의 운전대를 잡고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넘나들며 이틀을 함께했다.

질서 정연하고 널찍한 실내 공간

Mercedes-EQ The EQB의 실내에 들어서면 마치 고향을 찾은 듯 편안하다. Mercedes-Benz GLB와 판박이기도 하거니와 Mercedes-EQ나 AMG, 벤츠 등 산하 브랜드 차종과 나눠 쓰는 부품이 많기 때문. 가령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와 좌우 칼럼, 센터 콘솔의 커맨드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 세 꼭지별을 앞세운 어떤 최근 차종을 타도 척척박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지어 처음 접해도 적응하기 쉽다. 각종 조작 스위치와 패널의 구성 및 배치가 정직하고, 직관적이며, 상식적인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기능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난 군용 기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기다란 직사각형 샌드위치 박스처럼 잘 정돈한 스타일의 Mercedes-EQ The EQB에서 이 같은 느낌은 더욱 두드러진다. 독일의 다른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확연히 다른 메르세데스-벤츠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Mercedes-EQ The EQB는 Mercedes-Benz GLB보다 실내가



멋을 위한 기교를 욕심내지 않아 단정하고 깔끔한 뒤태. 쉽게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차종, 장르, 차급과 상관없이 지금 세대 메르세데스-벤츠를 관통하는 전형적 운전석 풍경.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좀 더 화려하다. 전기 심장을 암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소재와 컬러를 더한 까닭이다. 10.25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2개를 나란히 붙인 '와이드 스크린 콕핏'은 다양한 정보를 총천연색, 초고화질로 띄운다. 인공지능 비서 'MBUX(메르세데스-벤츠 사용자 경험)'를 갖춰 음성과 손짓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의 기본 사양인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을 지원한다. 유럽 도로에서 정차 후 차 밖으로 나올 때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야광 재킷이 포함된 점이 흥미롭다. 또한 '메르세데스 미(m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와 충전 설정, 사전 온도 조절까지 할 수 있다.

Mercedes-Benz GLB가 그랬듯 Mercedes-EQ The EQB 역시 실내 공간이 넉넉하다. 2,829mm의 휠베이스를 한 치의 에누리 없이 활용했다. 5인승 시승차의 2열 머리 및 다리 공간은 각각 87mm, 979mm. 뒷좌석은 6:4로 나눠 접을 수 있고, 앞뒤로 140mm 밀거나 당길 수 있다. 덕분에 짐 공간을 1,719L까지 확장할 수 있다. 옵션으로 신장 165cm 승객까지 부담 없이 소화하는 3열도 더할 수 있다.



Mercedes-EQ The EQB는 넉넉한 휠베이스를 갖춰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뒷좌석용 송풍구도 따로 마련했다.

정교하고 즉각 반응이 매력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륜구동 방식이다. 하지만 Mercedes-Benz GLB처럼 변속기에서 뒤 차축으로 이어진 프로펠러 샤프트는 없다. 앞뒤 각각의 전기모터가 네 바퀴를 굴리는 까닭이다. 하지만 뒷좌석 바닥엔 기다란 구동축을 품기 위해 볼록 솟은 부분이 남아 있다. Mercedes-Benz GLB와 함께 쓰는 범용 플랫폼의 흔적 기관인 셈이다. 아날로그 대비 디지털의 장점으로, 정교한 제어와 즉각 반응을 꼽는다. 물리적 연결을 전기신호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Mercedes-EQ The EQB의 4MATIC은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차축의 전자제어 유닛을 통해 1초당 100회씩 토크를 가변적으로 나눈다. 제어가 촘촘할수록 반응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100분의 1초면 인간의 감각으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다. Mercedes-EQ The EQB의 전기모터는 앞쪽이 비동기식, 뒤쪽이 영구자석 동기식이다. 구동계는 Mercedes-Benz GLB와 정반대다. Mercedes-Benz GLB가 앞바퀴 굴림 기반 사륜구동인 반면, 이 모델은 뒷바퀴 굴림 기반의 사륜구동이다. 또한 비슷한 출력의 Mercedes-Benz GLB보다 400kg 이상 무겁다. 이 같은 차이는 고스란히 Mercedes-EQ The EQB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Mercedes-EQ The EQB와 GLB의 주행 감각은 뚜렷이 다르다. Mercedes-EQ The EQB 300의 최대출력은 228마력(168kW), 최대토크는 39.7kg·m다. GLB 250 4MATIC(이후 Mercedes-Benz GLB)과 비슷하다. 그러나 무게 때문에 운동 성능은 약세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8초로, Mercedes-Benz GLB의 6.9초에 뒤진다. 최고속도 역시 시속 160km로, Mercedes-Benz GLB의 시속 236km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전반적 운전의 만족감은 Mercedes-EQ The EQB가 월등히 높고 고급스럽다. 게다가 가족을 위한 SUV로서의 구성에 충실하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와 '공기 청정 패키지'가 대표적. 환경부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13km. 하지만 요즘 계절엔 큰 노력 없이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용량은 66.5kWh로, 잔량 10%일 때 급속 충전하면 30분 만에 80%까지 채울 수 있다.

Mercedes-EQ The EQB 300 4MATIC AMG Line 주요 제원

길이×너비×높이	4,685×1,835×1,700mm
최대출력	168kW(약 228마력)
최대토크	39.7kg·m
구동 방식	네 바퀴 굴림
0→시속 100km 가속 시간	8초
최고속도	시속 160km
1회 충전 주행거리	313km
승차 정원	5인(7인승 옵션)



Mercedes-Benz GLB의 주유구 자리가 Mercedes-EQ The EQB에서는 충전구다.



토글 스위치로 운전 모드도 바꿀 수 있다.

Mercedes-Benz GLB 250 4MATIC 7인승

Mercedes-Benz GLB는 속칭 '반칙왕'이다. 국내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에서 동급 최초로 7인승 옵션을 마련해 독점 영토를 확보했다. 유연한 활용성과 전천후 주행 성능을 겸비하고 싶다면 선택은 명료하다. Mercedes-Benz GLB 250 4MATIC 7인승이다.



신비로운 대자연의 나라

Mongolia 몽골

**몽골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나라다.
드넓은 초원과 황금빛 사막, 전통 가옥 게르, 유목민과 낙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이 있는 신비로운 나라, 몽골로 안내한다.**

Editor 두경아 Photo Shutter Stock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통 가옥 게르는 몽골 풍경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몽골은 여름에 떠나기 좋은 여행지다. 몽골의 7~8월은 우리나라 4~5월 정도의 선선한 날씨로 여행하기 적당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신공항까지 직항 항공편이 많아 접근성이 뛰어나며, 비행기로 3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짧은 일정에도 부담이 없다. 그러나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이 전무하다시피 한 오지라 자유 여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내게 맞는 여행사와 상품을 선택해 가이드와 함께 여행해야 한다.



몽골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몽골 제1의 도시 울란바토르

칭기즈칸의 도시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도심이 넓지 않아 한나절이면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여행은 랜드마크인 수흐바토르 광장(Genghis Khan Square)에서 시작된다. 광장 중앙에는 몽골의 독립 영웅 담디니 수흐바토르(Damdini Suhbator) 기마상이 세워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몽골 정부 청사가 있는데, 청사 앞 중심부에는 칭기즈칸 동상이 위용을 뽐내고 있다. 또 이 광장을 중심으로 몽골 국립박물관, 오페라극장, 몽골 현대미술관, 칭기즈칸 국립박물관, 칭기즈칸 공원 등이 모여 있다.

도심 북서쪽에 있는 간등 사원(Gandantegchenling Monastery)은 몽골 최대 규모 사원으로 꼽힌다. 1727년에 세운 이 사원은 냉전 시대 공산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몽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원이기도 하다. 남쪽에 있는 복드 칸 궁전 박물관(Bogd Khaan Palace Museum)은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복드 칸이 20여 년간 거주했던 겨울 궁전이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 탱화 등 불교미술품과 차르가 보낸 금빛 장화, 여우 80마리의 모피로 만든 예복 등이 전시돼 있다. 자이승 승전탑(Zaisan Memorial)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 몽골 연합군이 일본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 세웠다. 시내 전경을 조망하는 전망대로도 훌륭하다.


몽골의 알프스라 일컫는 테렐지 국립공원

몽골 최고의 휴양지
테렐지 국립공원

울란바토르 북쪽, 자동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테렐지 국립공원(Terelj National Park)은 헨티산맥에 위치한 몽골 최고의 휴양지다.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초원, 아름다운 야생화, 쏟아질 듯한 별까지 웅장한 대자연을 느낄 수 있어 몽골의 알프스라 불리며, 공원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거북바위다. 약 30m 크기의 대형 바위로, 멀리서 보면 거북이를 닮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거북이 모양이 절묘한데, 자연의 풍화작용만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한다. '새벽 사원'이라고도 일컫는 아리야발 사원(Aryabal Meditation Temple)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며, 테렐지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으로 꼽힌다. 건물은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 코끼리를 형상화해 만들었는데, 본당이 코끼리 머리, 그 앞에 이어져 있는 108개의 계단은 코끼리의 코를 상징한다. 특히 사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미니 고비사막이라 부르는
엘승타사르하이사막

짧은 일정이라면 최선의 선택!
엘승타사르하이사막

'분절된 모래'라는 뜻의 엘승타사르하이(Elsen Tasarhai)는 이름처럼 사막 중간중간이 분절돼 있다. 고비사막의 '홍고린엘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래언덕 규모는 그보다 작아 '미니 고비사막'이라고도 부른다. 울란바토르에서 비교적 가까워 일정이 짧은 관광객에게 고비사막 대안으로 사랑받는다. 초원과 사막이 뒤섞여 있는 모습인데, 현재도 초원의 사막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낙타 트레킹, 사막 모래언덕 등반, 모래 썰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몽골의 랜드마크
칭기즈칸 동상

공원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해 닿을 수 있는 천진벌덕(Tsonjin Boldog) 지역에는 몽골의 랜드마크인 대형 칭기즈칸 동상(Equestrian Statue of Genghis Khan)이 있다. 스테인리스로 특수 제작한 동상으로, 동상 높이만 40m이며, 동상 아래 구조물까지 합치면 50m 정도다. 말을 탄 동상 중에는 세계 최고 높이다. 이 동상은 칭기즈칸의 몽골 통일 800주년이던 2006년 건립을 시작해 2010년에 완공했다. 동상이 세워진 자리는 칭기즈칸이 열입곱 살 되던 해인 1179년 황금 채찍을 발견한 곳이라고 전해진다. 칭기즈칸이 바라보는 곳은 그의 고향 수흐바토르 방향이며, 동상 좌측에는 그의 어머니 호에룬 동상이 서 있다. 박물관 내부에는 높이 9m, 길이 6m의 몽골 전통 신발 고탈이 전시돼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장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상 꼭대기인 말머리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다.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칭기즈칸 동상



몽골 최대 관광지 고비사막은 대부분이 암석으로 이뤄져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

고비사막

흔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칠레의 아타카마, 그리고 몽골의 고비사막(Gobi Desert)을 세계 3대 사막으로 꼽는다. 고비사막은 중국과 몽골의 국경 사이에 동서 1,500km, 남북 800km에 걸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막이자 아시아 최대 사막이다. 이곳은 대부분 암석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 일부 지형인 홍고린엘스(Khongoryn Els)는 몽골에서 가장 크고 장엄한 모래언덕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홍고린엘스는 높이 약 300m, 폭 약 12km, 길이 약 180km 규모이며, 세계 3대 별 관측지로도 유명하다. 모래 썰매 타기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모래언덕 정상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놓치지 말아야 할 절경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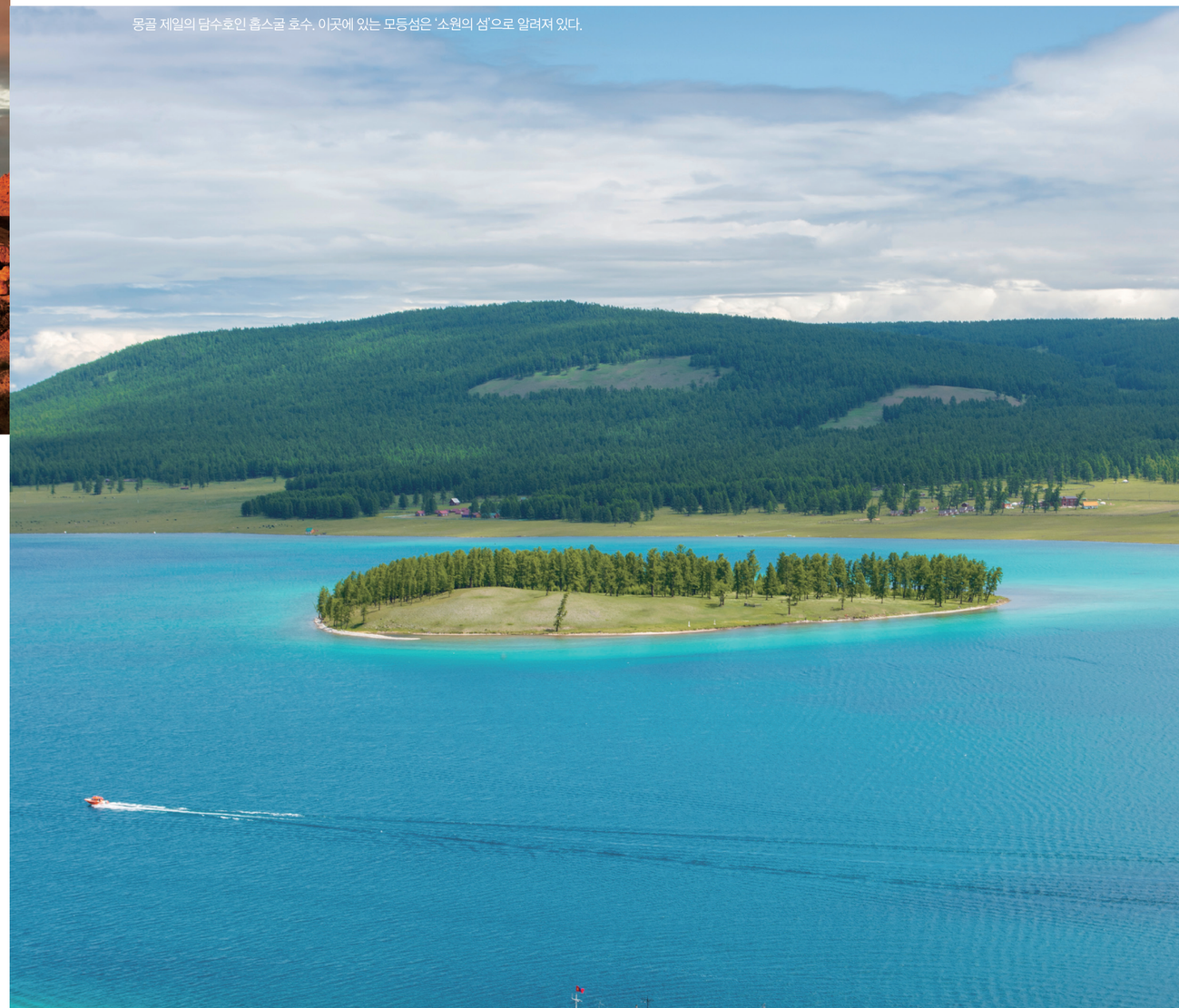
'아시아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일컫는 차강소브라가(Tsagaan Suvraga)는 몽골어로 '하얀 불탑'이라는 뜻으로, 멀리서 보는 불탑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는 고생대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융기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절벽으로, 오래전 바닷속 지층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붉은 띠와 흰색을 띠는 석회암이 어우러져 마치 파도치는 모습처럼 보인다. 석양이 질 때는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한다.

몽골의 푸른 진주

홉스굴 호수

울란바토르에서 북서쪽으로 700km가량 떨어진, 몽골 최북단에 위치한 홉스굴 호수(Khuvsgul Lake)는 몽골에서 고비사막 다음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몽골에서는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몽골 제일의 담수호(2,760km²)인데, 이는 제주도 면적의 1.5배 크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담수호인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원류가 되는 호수로, 바이칼 호수처럼 물이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하다. 호수에는 12종의 어류가 서식하며, 주변 지역에는 200종이 넘는 조류와 순록 · 산양 · 곰 · 늑대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호수는 9월 말부터 얼기 시작해 11월이면 완전히 얼고, 이듬해 5월이 되어야 녹기 시작한다. 매년 3월 초에는 얼음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199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홉스굴 주변으로 우거진 숲과 바위산,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등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호수에는 작은 섬이 3개 있는데, 보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다. 이 중 모등섬은 '소원의 섬'이라 불리며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몽골 제일의 담수호인 홉스굴 호수. 이곳에 있는 모등섬은 '소원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상위 0.1%를 위한 최고급 프레스티지 리조트

THE SIENA Resort

도심 속에 갇혀 보내는 호캉스는 잊어라.
해외여행보다 편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럽의 어느 휴양지보다 이국적인 제주도에
새롭게 오픈한 국내 최고급 리조트, 더 시에나로 떠나보자.

Editor 지언 Photo THE SIENA Resort



메인 광장과 연결된 인피니티 야외 수영장

더 시에나 리조트의 건물 외관만 보면 국내에 있는 호텔이라고 믿기 힘들다. 새하얀 석조 외벽에 아치형으로 이어진 기둥들, 맑고 푸른 인피니티 풀과 뾰족하게 솟은 정원의 나무들 그리고 넓고 낮은 하늘이 한눈에 담긴다. 지금껏 국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정경이다.

더 시에나 리조트는 지난 6월 29일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리조트로 제주 서귀포에 있다. 서귀포 호텔 하면 흔히 떠올리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 풍광을 멀리 두고 한라산 가까이 자리 잡았다. 이 덕분에 한라산을 등에 업고 서귀포 앞바다를 보다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좀 더 가까워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최대한 자연 지형에 맞춰 더 시에나의 건물과 시설을 배치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전체적으로는 제주의 바다와 마을, 그리고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더 시에나 전경



광장 바닥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으로 생동감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에나 정원

따라서 건축물이 두드러지는 것을 지양하고 높이도 법정 최대 고도보다 낮게 설계해 리조트에 들어선 제주 하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리조트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 리조트에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그 흔한 야자수도 없다. 그 대신 수평적 구조로 펼쳐진 건물에 잘 어울리는 좁고 기다란 측백나무로 리조트 곳곳에 포인트를 줬다. 이 덕분에 유럽의 조용한 리조트에 와 있는 듯 이국적 분위기와 포근함이 느껴진다.

중세 유럽의 고딕 양식으로 지은 휴양형 하이엔드 리조트

더 시에나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은 중세 이탈리아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간직한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 지방의 '시에나(Siena)'를 모티브로 탄생했다. 복잡한 도심 일상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제주의 자연 속에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시에나의 분위기와 역사를 조화롭게 연출해 유서 깊은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다. 핵심 공간은 커뮤니티 광장. 유럽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중심부에 있는 대형 광장과 연결된다. 더 시에나도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건물 중심부에 위치한 캄포 광장은 방사형으로 퍼지도록 설계해 각각 다른 주제를 지닌 커뮤니티 공간과 인피니티 풀, 잔디 정원, 테마 정원, 시크릿 가든 등으로 연결된다. 광장의 바닥은 대형 LED 스크린 영상으로 채워져 있다. 광장과 이어진 야외 인피니티 풀에서는 수영장에 몸을 담근 채 웅장한 자연의 변화를 담은 실감 나는 영상을 미디어 아트 보듯 감상할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제주 풍광과 함께 또 다른 거대한 자연을 만나는 경험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미디어 아트 영상은 메인 로비에서도 볼 수 있다. 9만 개의 크리스털이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시선을 압도하는 메인 로비 한쪽 벽면이 LED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감탄을 자아낸다.

객실 역시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했다. 총 82개 객실이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넉넉한 발코니를 갖춘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6채의 독채 풀빌라는 베르사체·에르메스·벤틀리·바카라 등 각각 다른 명품 브랜드의 홈 컬렉션으로 꾸며 초럭셔리 리조트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밖에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하고 새로운 미식 세계로 안내할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 라운지 바, 다양한 테마의 정원 등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할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올여름 제주 자연과 어우러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품격 있는 휴식을 원한다면 더 시에나 리조트는 최고 장소가 될 것이다.

INFO

주소 제주 서귀포시 용흥로66번길 158-8
예약 및 문의 064-735-7100 / thesiena.co.kr


하이엔드 샹들리에로 장식한 이탤리언 파인다이닝, 리 스투베


에르메스 홈 컬렉션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풀빌라 'THE HE'


골드로 포인트를 준 베르사체 홈 컬렉션으로 꾸며진 풀빌라 'THE VE'의 거실


우드 소재로 마감해 중후함이 돋보이는 벤틀리 홈의 갤러웨이 컬렉션으로 꾸며진 풀빌라 'THE BT'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선생

복되고 길한 반짝임

금박장 김기호

태양 아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빛, 금이다. 이 신성한 반짝임은 태초부터
절대적 아름다움이자 영험한 종교, 강력한 권세와 막대한 부를 상징했으며, 그 간절한 염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다.
금박장 김기호가 스스로 꿈을 새기고 소망을 만드는 이라 말하는 이유다.

Writer 강은진 Photo 임익순



금박, 더없이 상서로운 새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金箔匠) 보유자 김기호 선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율곡 이이의 일화가 떠올랐다. 선생의 공방 '금박연(金箔宴)'이 북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일까. 정갈한 한옥을 따라 걷다 보니 과거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며 한번 떠오른 생각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금박 장인과 율곡 이이 사이에 무슨 접점이 있단 말인가.

열세 살에 진사시를 시작으로 무려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율곡 이이는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컫는 조선 최고의 천재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전국 1등은 물론 사법고시 · 행정고시 · 외무고시 등 각종 고시 1등을 아홉 번 한 정도에 빗댈 수 있다. 그가 길을 지나가면 아이들까지 "구도장원공 지나간다"며 우러러보았다고 한다.어디 이뿐일까. 왕실과 사대부에서는 그가 사용한 벼루를 얻기 위한 쟁탈전이 대단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오늘날 시험을 둘러싼 각종 미신과 금기가 넘쳐나듯,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율곡 이이의 좋은 기운이 벼루를 통해서나마 자식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금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연일 치솟는 금 시세 뉴스를 보고 있으면 '금값'이라는 말이 절로 이해된다. 이런 귀한 금을 소유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품격이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하고 강력한 염원으로 통한다. 금박이다.

"금박은 꿈입니다. 옷을 입는 사람도, 만든 사람도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금박에 담으니까요. 그래서 금박을 완성하는 과정은 꿈이 실현되길 함께 염원하는 길이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문양을 새깁니다."

"금박은 꿈"이라는 김기호 선생의 말이 생각을 율곡 이이의 벼루까지 닿게 한 것 같다. 과거에는 금이 귀한 데다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그 자체로 존귀했다지만, 요즘은 하루 수천수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게 금박이다. 율곡 이이의 벼루 역시 귀한 벼루여서 그랬겠는가,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랬겠는가. 율곡 이이가 사용한 벼루여야만 비로소 쟁탈전을 벌일 만큼 귀하디 귀한 것이 된다.

김기호 선생의 금박이 그랬다. 알면 알수록 선생이 직접 새긴 복(福) 자 하나라도 손에 넣고 싶어졌다. 율곡 이이의 벼루처럼 내 꿈을 향해 가는 길에 힘을 보태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왕실 금박 장인 가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김기호 선생의 가문이었다. 우리나라 금박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조선 시대에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금박장은 모두 왕실 소속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금박연의 역사는 철종 대 궁궐에 물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김기호 선생의 고조부 김완형이 낙선재 윤비, 영친왕비, 덕혜옹주 의대에 금박을 올렸다는 문헌의 기록으로 시작한다. 이어 2대 증조부 김원순과 3대 조부 김경용이 궁에서 금박장으로 일했다. 해방 후 왕실이 없어지고도 4대 부친 김덕환과 5대 김기호 선생 자신이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 보유자로 170여 년간 가업을 계승해오고 있다. 2대 김원순은 국장도감의 명성황후 의궤의 금박 제작을 직접 지휘한 명장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과거에는 왕실에서 일하는 금박장이 여럿 더 있었지만, 이제는 김기호 선생 가문만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5대에 걸쳐 가보로 내려오는 목판만 500종이 넘는다. 김기호 선생은 아직도 왕실에서 사용하던 금박 판으로 작업한다. 그런 까닭인지 선생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의친왕의 딸, 조선의 마지막 왕녀 이해경 여사의 저고리 금박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해경 여사의 저고리에 과꽃을 장식했습니다. 과꽃은 조선 왕실 의복에서 가장 널리 쓰인 문양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왕실이지만, 고조부께서 시작하신 왕실 장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의외로 김기호 선생은 아버지에게 가업을 이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선생 역시 진로의 선택지에 금박은 없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삼성전자에 입사해 로봇 엔지니어로 일했다. 유능한 아들은 아버지의 또 다른 자랑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정의 순간이 왔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업을 잇는다는 건 무형의 기술과 유형의 도구를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의 자산은 또 다른 무게입니다. 제가 금박을 하지 않으면,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도구들은 아마 기증이란 이름으로 박물관에 가게 되겠지요. 대개 기증은 좋은 의미지만, 제게는 계승하지 못한다고 역사에 선언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김기호 선생은 그의 나이 서른에 본격적으로 금박을 시작했다. 로봇 엔지니어와 금박장,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극명하게 다른 세계관을 넘어온 선생은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문양 판을 톱질하면 뒤에서 나무를 잡았고, 끝나면 뒷정리를 하고, 학교 갔다 오면 종로의 한복집으로 배달을 나가 이런저런 요청 사항을 듣고 전하는 등 잔심부름을 도맡으며 이미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익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후계자의 길을 걸은 지 20년 만이었다.

"그냥 뚝뚝 찍는 게 아니고 옷의 균형감, 비례, 여백의 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게 금박 작업입니다. 그중 풀칠이 가장 중요해요. 계절에 따라, 옷감 종류에 따라 숙련된 감으로 농도를 맞추고, 알맞게 굳혀야만 금빛의 광을 잃지 않아요."



기술의 핵심은 불멸의 금빛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복에 금박을 입혔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금박 공예는 건축물이나 액자 틀, 가구나 불상 등에 붙이는 공법이었다. 중국과 일본도 의복에 금박을 이용한 사례는 있으나 단절된 지 오래고 유물도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을 옷에 섬세하게 붙일 수 있는 고유의 직물 금박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기호 선생 가문을 통해 전통 방식 그대로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선생이 가업을 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유일의 직물 금박 기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

"목판을 이용해 원단에 금박 무늬를 찍어내는 것을 인금(印金)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이자 우리 집안만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금실보다는 금박으로 비단 등 다양한 직물의 질감을 살리고, 금을 덮었을 때 빛이 충분히 산란하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금박장 김기호 선생은 금박 문양을 조각하는 기술, 바탕 옷감에 대한 이해력과 날씨에 따른 어교(민어부레 풀)의 상태 변화를 예측해 금박을 붙이는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금박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풀의 농도를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많다. 농도가 맞지 않으면 선이 선명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데다 형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고 망가질 수 있다. "그냥 뚝뚝 찍는 게 아니고 옷의 균형감, 비례, 여백의 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게 금박 작업입니다. 그중 풀칠이 가장 중요해요. 계절에 따라, 옷감 종류에 따라 숙련된 감으로 농도를 맞추고, 알맞게 굳혀야 금빛의 광을 잃지 않아요." 김기호 선생은 금박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 부, 사랑 같은 꿈이 문양에 담기는 만큼 바래지 않는 금빛으로 저마다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다. 참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다. 조선 왕실 금박장인 가문, 금박연의 170년 역사는 이제 김기호 선생의 아내 금박장 이수자 박수영 씨와 부부의 두 남매가 전수자로 뒤를 이으며 새롭게 써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반짝임을 향한 쟁탈전이 머지않았다. 영원히 변치 않을 금빛이다. 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선생과 금박장 이수자 박수영 부부
박수영씨는 사넬이 뽑은 '2022년 올해의 장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1

사진으로 만나는 금박장 김기호의 작품 세계

천년의 금빛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는 전통을 이으면서도 오늘의 소망을 작품에 담아낸다.
천년을 이어온 그 빛은 선생의 손끝에서 다음 천년을 위한 반짝임을 얻는다.


2


3

❶ 대례복 중 하나인 홍원삼(紅圓衫). 왕비의 예복으로 봉황을 금박으로 부금했다.
❷ 참죽나무에 금박을 입힌 은하나비 함(32×17.5×17.5cm)
❸ 침금법, 인금법, 니금법을 이용해 완성한 금박 옻칠 함. 예물 보석함(32×23.5×12.5cm)


4


5


6

❹ 금전지 화관(花冠). 왕실 여인들의 예장용 관으로, 한지로 형을 잡고 순금으로 금전지를 만들어 꾸민 후 각종 보석을 달아 만든다.
❺ 여러 가지 길상문을 금박한 어린아이들의 의복
❻ 먹으로 염색한 실크 위에 용, 박쥐, 사신 등 여러 가지 길상문을 금박으로 부금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❼ 용보(龍補) 액자 – 왕, 세자, 세손 등의 예복에 용을 수놓아 붙이던 헝겊 조각


7

루트비히 미술관 컬렉션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피카소 · 워홀 · 샤갈 한곳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

독일 미술관이 국내에 통째로 들어왔다. 독일 쾰른 루트비히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을 전시한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이야기다.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마르크 샤갈, 바실리 칸딘스키,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20세기 미술계를 뒤흔든 거장들의 작품을 한곳에서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

Editor 강은진 Photo 마이아트뮤지엄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전시 모습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독일 루트비히 미술관 컬렉션 전시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이 진행 중이다. 루트비히 미술관은 독일 쾰른 최초의 미술관. 쾰른 대성당과 함께 쾰른을 대표하는 명소로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미술에 문외한이어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거장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 세 번째 규모의 피카소 컬렉션과 세계 최고 수준의 팝아트 컬렉션이 유명하다.

전시에 앞서 루트비히 미술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루트비히 미술관은 페터 · 이레네 루트비히 부부가 1976년 350점의 현대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설립했다. 두 사람은 마인츠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몬하임(Monheim)의 가업을 이어받은 페터는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며 작품 수집에 몰두할 수 있는 배경을 갖췄다. 일찍부터 미술 작품 수집을 시작한 부부는 세계 예술이라는 구상 아래 고대 · 중세 미술부터 민속 미술과 현대미술 작품까지 폭넓게 수집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팝아트를 중심으로 동시대 작품을 폭발적인 기세로 수집하고, 1969년 쾰른의 발라프 리하르츠 미술관에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에도 유럽 각지 미술관을 지원해 온 부부는 컬렉션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들의 행보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 2023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파블로 피카소, '아티초크를 든 여인', oil on canvas, 1916

마르크 샤갈,
'내 여동생의 초상화', oil on canvas, 1909



©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23

볼프강 마토이어,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요', oil on canvas, 1980



© Wolfgang Mattheuer / BILD-KUNST, Bonn - SACK, Seoul, 2023

루트비히 부부가 피카소에 '입덕'한 작품?

전시는 총 6개 섹션으로 나뉜다. 1부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표현주의와 아방가르드 작품, 2부 '피카소와 동시대 거장들'은 피카소 컬렉션 수집가로 잘 알려진 루트비히 부부의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3부부터 6부까지는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독일 현대 예술 등을 아우르는 미술사 흐름을 만날 수 있다.

20세기 초 칸딘스키를 중심으로 '청기사파'와 '다리파'가 생겼다. 19세기 사실주의와 인상파 화풍에서 탈피해 거친 붓질, 과감한 색채로 인간 본성의 순수하고 원시적인 역동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즈음 러시아에서는 사회 격변과 아방가르드로 일컫는 예술적 실천이 확산됐다. 1부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는 격변 속의 혁신을 표현하는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두 나라의 예술가들이 인습을 타파하는 접근을 보여준다. 구체적 대상 없이 선과 색채로 기하학 형태를 보여주는 칸딘스키 작품, 강렬한 색채 대비를 보여주는 러시아 귀족이자 군 장교 출신인 알렉세이의 내면이 인상적이다.

2부 '피카소와 동시대 거장들'에서 주목할 작품은 피카소의 '아티초크를 든 여인'이다. 얼굴이 왜곡된 여인은 무기를 상징하는 아티초크와 뾰족한 손톱을 통해 전쟁의 암울함을 표현했다. 루트비히 부부가 피카소에게 '입덕'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부부는 피카소 작품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게 됐다. 피카소의 입체파 확립 시기부터 창작 말년까지 단계별로 발전한 작품 8점을 주축으로,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조르주 브라크,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마르크 샤갈 등 동시대 거장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전통 예술관에 반기를 든 팝아트

초현실주의는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사조다. 전후 유럽과 미국에서 생겨난 회화 운동의 토대로, 새로운 회화를 찾는 예술적 실천은 '앵포르멜(informel)'로 나아갔다. 앵포르멜은 혼돈의 이미지로 보이지만, 전쟁으로 황폐화된 인간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암시한다. 앵포르멜 선구자로 볼스와 장 뒤뷔페가 있다. 3부 '초현실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까지'에서는 전후 독일 추상화가의 대표적 인물인 에른스트 빌헬름 나이의 작품과 카를 오토 괴츠, 베르나르트 쉴츠 등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화풍을 발전시킨 인물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루트비히 부부는 1967년 뉴욕을 방문했고 새로운 예술 흐름과 접촉하게 됐다.

그 후 기하급수적으로 팝아트 컬렉션을 늘렸다. 대량 소비에서 비롯한 대중문화에 비판을 가한 팝아트는 고유함에 입각해 전통 예술관에 반기를 들며 일상적 이미지들을 예술로 표현했다. 우리가 잘 아는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아이콘이다.

평범한 사물을 반복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소비주의 사회를 나타낸 해당 작품들은 4부 '팝아트와 일상'에서 소개된다. 5부 '미니멀리즘 경향'은 2차원성과 재현에서 완전 탈피해 현실과 작품의 괴리를 최소화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3차원 방식으로 독특하게 오브제를 다룬 미술을 선보인 것. 6부 '독일 현대미술과 새로운 동향'에서는 퍼포먼스 아트,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성장한 현대미술의 매력을 소개한다. 독일의 전쟁과 분단이 예술에 투영된 장면은 우리나라 관객에게 또 다른 울림을 안겨준다.

주요 예술 사조와 거장 작품을 아우르는 컬렉션

이번 전시는 20세기 모던아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예술 사조와 거장들의 작품을 아우르는 컬렉션으로 구성해 탄성을 자아낸다. 독일 표현주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 등 20세기 격변의 시대에서 태동한 예술 운동의 배경 및 서양미술사의 발자취가 오롯이 전해진다. 피카소, 샤갈, 칸딘스키,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 다양한 사조의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폭넓은 작품들을 루트비히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배경, 독일의 정치적 탄압과 분단 과정에서도 그 작품들을 보존한 사연은 예술 작품이 긴 생명력을 갖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던 위엄을 돌아보게 한다.

관람 정보

전시명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장소 마이아트뮤지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지하 1층)
기간 8월 27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관람 료 성인 2만 원 / 청소년 1만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 2023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파블로 피카소, '머리가 있는 직사각형 석판', faience, 1948

바실리카 칸딘스키, '흰 붓 자국', oil on canvas, 1920



재스퍼 존스, '0에서 9까지', oil on canvas, 1959



© Jasper Johns/(VAGA at ARS, NY)./(SACK, Korea)

천년의 바람이 만든 合作

우리의 여름 부채

**바람을 일으키는 선면(扇面)과 대나무 살, 손잡이로 이뤄진 부채는 첨단 기술과 미(美)의 집합체다.
무게의 경량화를 위한 끝없는 기술 개발, 풍량(風量) 강도의 미세한 조절,
사용자의 예술적 취향이 반영된 미려한 디자인 등 '손안의 미술관'으로 구현돼왔다.
역사를 거슬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맵시와 안목 및 지위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바람의 명작, 여름 부채다.**

Editor 강은진 **Photo** 문화재청 각 작가 제공


1


2

❶ 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김동식의 합죽선(合竹扇).
전승되는 접부채 중 최고 수준의 정교함과 세련미를 갖추었다.
❷ 태극 문양에 우주의 조화를 담고 있는 태극대원선. 전북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의 작품이다.
❸ 연잎, 양귀비, 맨드라미 등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는 메르(Mer)의 박정연 작가 부채.


3



1



2

❶ 전북 한지 장인이 뜬 수제 한지를 이용해 자신만의 정교한 염색으로 은은한 멋을 살린 김현주 작가의 부채
❷ 충남무형문화재 부채장 이광구의 공작선. 후백제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공작선을 보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❸ 전북무형문화재 선자장 엄재수의 속살에 옻칠한 칠접선 모음. 그는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칠접선을 복원해냈다.
❹ 인두로 대나무 겉면을 지져 그림이나 문양을 표현하는 낙죽 기법으로 만든 낙화낙죽 합죽선. 전북무형문화재 낙죽장 이신입의 부채다.



3



4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선정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는 여름 미식

오감으로 여름을 만나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방법은 제철 음식으로 차린 식탁 앞에 앉는 것이 아닐까.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에서 선정한 레스토랑이 선보이는 여름 미식으로 이 계절이 선사하는 기쁨을 만끽해보자.

Editor 남지연 Photo 각 장소 제공

랍스터와 캐비아에 막걸리 비스큐를 곁들인 초밥

한 아름 담아낸 계절을 만나다
밍글스

밍글스는 '섞이다, 어우러지다'라는 뜻의 영단어 밍글(mingle)에서 착안한 상호명으로, '서로 다른 것을 조화롭게 어우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 이름에 매우 충실하게도 한식을 기본으로 일본, 스페인, 프랑스의 맛을 다양하게 반영한 메뉴를 선보이는 밍글스는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퓨전 한식 체험'을 제공한다는 기치 아래 한국인 고객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을, 외국인 고객에게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밍글스는 2014년 오픈한 이후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이 론칭하던 해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018 에디션부터 현재까지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밍글스를 오픈하기 전 해외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아온 강민구 셰프의 요리에는 자신의 국제적 경험을 식탁에 올리겠다는 사명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러나 한식의 핵심인 '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전통 한식'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식의 맛은 장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처럼 밍글스의 요리에는 한국적 맛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요리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밍글스는 한국의 자연과 제철 식재료를 담은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계절은 물론, 매일 재료의 수급 상황에 따라 메뉴가 변경되기도 한다. 꽤 인상적인 부분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고객에게 음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소쿠리에 한가득 담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덕분에 이곳에서는 계절의 선명한 색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제철 과일로 담근 김치나 여름 중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초당옥수수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등 밍글스는 계절이 주는 찰나의 기쁨을 한 치도 놓치지 않고 음식에 담아낸다. 매장 내 시원하게 뚫린 창으로 보이는 초록빛 나무들이 자아내는 푸르름만큼이나 청량한 밍글스의 여름 식탁을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꼭 만나보자.

INFO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7길 19 힐탑빌딩 2층
문의 02-515-7306



캐비아를 곁들인 딸기와 제주산 귤 타코


총 3층으로 이뤄진 정식당의 다이닝 홀

새로운 한식, 그만의 장르가 되다

정식당

서울과 뉴욕을 기반으로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인 한식을 선보이는 정식당은 김밥, 비빔밥, 구절판 등 한국인이 친근하게 여기는 다양한 한식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이며 뉴 코리안(New Korean)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는 뉴욕과 스페인 등 해외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 2월 서울로 돌아와 본인의 이름을 딴 정식당을 오픈했다. 이후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8〉에서 2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을 개척한 주인공이라 평가받는 임 셰프는 서울의 정식당 외에도 뉴욕에 오픈한 한식당인 '정식'을 통해 새롭고 색다른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계절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찬과 요리는 정식당만의 독창적 해석이 어우러져 고객들의 미각을 만족시킨다. 특히 메뉴 이름에서부터 굉장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맛있는 김밥'과 바다를 고스란히 담아낸 '문어 요리'는 정식당의 시그너처 메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INFO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58길 11 **문의** 02-517-4654



한남동에 위치한 모던한 분위기의 소설한남


여름 제철 채소를 사용해 만든 월과채


정식당의 시그너처 메뉴인 문어 요리


한국의 반찬을 애피타이저 형태로 재해석한 메뉴

익숙함 속 새로움을 발견하는 여정

소설한남

소박하고 정갈한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지난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2〉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소설한남은 익숙함 속에서 찾아낸 한식의 아름다움을 통한 감동을 선사한다. 상호명 소설한남은 '흰(素)빛의 수수하고 정갈한 본연의 한식을 풀어(設) 선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승전결이 있는 한 편의 '소설 같은' 음식이라는 의미를 더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인 한식의 정취를 선사한다. 식혜와 떡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탕, 지짐이, 무침, 구이 등의 요리는 소박하고 정갈한 한식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엄태철 셰프의 확고한 철학이 묻어난다.

우리나라 밥상이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담아내는 이유는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이는 식문화 때문이다. 이러한 한식의 특징에 주목한 엄 셰프는 각각의 반찬을 골고루 맛보며 조화를 느끼듯 각각의 코스마다 양념과 조리법에 차이를 주면서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름 채소를 사용해 만든 월과채, 정갈하고 소담한 국수, 여름 제철 과일을 사용한 디저트까지 소설한남이 선보이는 음식은 때가 되면 매년 찾아오는 익숙한 계절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우리 삶을 닮았다.

INFO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18 B동 지하 1층 **문의** 02-797-5995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3스타 레스토랑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가온	한식
모수*	이노베이티브

2스타 레스토랑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권숙수	한식
라연	한식
밍글스	컨템퍼러리
스와니예*	이노베이티브
알라프리마	이노베이티브
정식당	컨템퍼러리
주옥	한식
코지마	스시

1스타 레스토랑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강민철 레스토랑*	컨템퍼러리
고료리 켄	컨템퍼러리
라망시크레	컨템퍼러리
라미띠에	프렌치
레스토랑 알렌*	컨템퍼러리
묘미	이노베이티브
무니	일식
무오키	컨템퍼러리
미토우	일식
비채나	한식
세븐스도어	컨템퍼러리
소설한남	한식
소울*	컨템퍼러리
솔뫰*	컨템퍼러리
스시 마츠모토	스시
에빗	이노베이티브
온지음	한식
윤서울	한식
이타닉 가든*	이노베이티브
익스퀴진	컨템퍼러리
일판*	데판야키
제로콤플렉스	이노베이티브
코자차	아시안
피에르 가니에르	프렌치
하네	스시

*2023년 신규 진입한 레스토랑

더클래스 효성

이정은 6 골프 클래스 진행



더클래스 효성이 이정은 6 프로의 고객 초청 골프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용인 전시장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1세션 용인 수지 전시장 고객 20팀 40명과 2세션 용인 수지 전시장과 고객 20팀 40명, 총 80명이 모였다. 특별히 골프 클래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정은 6 프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정은 6 프로의 근황은 물론, 그간 궁금했던 골프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했다. 골프 레슨 이후에는 행운권 추첨과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골프 클래스가 끝난 후 임직원 앰배서더와 이정은 6 프로의 Mercedes-EQ EQS SUV 시승기와 차량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골프 클래스를 비롯한 Mercedes-EQ EQS SUV 시승기 및 리뷰에 대한 내용은 더클래스 효성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클래스 효성

팔당/하남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



더클래스 효성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린 플러스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경기도 팔당 및 하남 일대 미사경정공원에서 30명의 임직원이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 플로깅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벤츠 그린플러스 활동의 일환이다. 벤츠 영업망 임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으로 기획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임직원이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하자는 뜻을 모아 동참했기에 성공적으로 플로깅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클래스 효성은 2021년부터 벤츠 어스 아워,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에 참여해 1시간 동안 전시장을 소등하는 등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리폴리클

본래 나의 힘 있는 두피 에너지를 찾기 위한 시간

두피도 피부이다. 피부에 좋은 성분은 꼼꼼히 따지면서 두피는 왜 문제가 생겨야만 찾기 시작할까? 단순 제조사가 아닌 독보적인 만능 줄기세포개발의 기술력을 가진 연구소 베이스의 제조사를 통한 완벽한 두피와 모발케어 전문 브랜드 리폴리클을 개발하였다. 트러블이 생긴 후, 노화가 진행된 후에 관리하지 말고 매일 채워주는 두피에너지, 리폴리클 두피집중케어(리폴리클의 안티에이징 헤어샴푸, 토닉, 앰플의 3단계)를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성분의 배합과 흡수력에 집중한 두피안티에이징, 리폴리클로 지금부터 시작하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더클래스 효성

여름 휴가철 대비 ‘벤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6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고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전국 13개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유상 수리를 진행한 고객에게 금액대별 사은품을 증정하고, 유상 수리 소모품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 캠페인 기간 내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최초 방문 고객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 용품 샤이닝 패키지’를 증정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최상의 차량 컨디션 유지를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더클래스 효성만의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높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Mercedes-EQ’ 라인업 시승 행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브랜드 ‘Mercedes-EQ’ 라인업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천안 · 청주에서 분당 · 동탄까지 지역을 확장했다. 6월 7일 천안 전시장을 시작으로 ▲8일 분당 정자 전시장 ▲13일 동탄 전시장 ▲14일 청주 전시장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초청 고객은 장거리 구간 주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번째 럭셔리 전기 세단 Mercedes-EQ EQS를 비롯해 Mercedes-EQ EQS SUV와 Mercedes-EQ EQE 차량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 인스트럭터의 설명을 통해 Mercedes-EQ의 강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시승 행사 내 케이터링을 제공하며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후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Mercedes-EQ가 선보이는 럭셔리함과 수준 높은 기술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 요청이 많다”며 “고객 경험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클래스 효성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DēLonghi

커피를 아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택



더클래스 효성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자세한 구매 방법은 고객센터 (02-6000-980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세계 판매 1위*

* 출처 : 독립조사기관, 2022년 전체 매출액 기준

더클래스 효성
사고 수리 지원 프로모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늘어나는 야외 활동 수요에 발맞춰 고객의 차량 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사고 수리 지원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실시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고 수리를 받은 고객을 위해 사고 수리 금액대별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 마스터 패키지' 등 사은품을 증정했다. 또한 교환일로부터 2년간 일반 수리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도 지원했다. 엔진오일 부품 최대 50%, 일반 수리 부품 최대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5월 말까지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인증 중고차 캠페인'도 실시했다. 상담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 중고차 전시장 방문 및 상담 진행 시 '메르세데스-벤츠 트래블 백'을 증정하고, 상담 후 차량을 구매하면 '메르세데스-벤츠 300 SL 빈티지 콤팩트 우산'을 제공하기도 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의 차량 관리를 돕고, 더클래스 효성의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LPGA 한진선 프로 홀인원
벤츠 선물에 "직접 타고 다니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통산 세 번째 홀인원을 기록한 한진선 프로가 리더 보드 최상단과 고급 자동차를 한 꺼번에 차지했다. 한진선 프로는 지난 4월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리스F&C 제45회 KLPGA 챔피언십 첫날 홀인원을 잡았다. 홀인원 부상은 약 9,200만 원 상당의 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EQE 차량이다.

한진선 프로에게는 역대 세 번째 홀인원 기록이지만, 차량을 부상으로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0년 '제10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1라운드와 지난해 '메디힐 · 한국일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바 있다.

홀인원 부상으로 차량을 전달받은 한진선 프로는 "오랜 노력으로 홀인원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뜻깊은데 고급 차량까지 획득해 기쁨이 배가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클래스 효성 관계자는 "한진선 프로가 이번 홀인원에 힘을 얻어 올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골프 대회 후원을 통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The Class Hyosung

창립 20주년 축하 이벤트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더클래스 효성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의
20주년을 축하해주세요!

더클래스 효성과의 인연이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후 편집부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필수 해시태그
#더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THECLASS

더클래스를 읽고 있는 모습,
골프 레저 등 여가를 즐기는 모습,
가족들과 더클래스를 보는 모습 등
더클래스와 함께 한 행복한 시간을
담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본인의 SNS에 업로드한 후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클래스 효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공지

2023년 〈THE CLASS〉 가을호에 발표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안내

애독자 편지 및 〈THE CLASS〉 인증샷 링크, 가족사진 보낼 곳
〈THE CLASS〉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SPECIAL GIFT



1
보이스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EL1
1명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트래블 백
5명



3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9명

독자 선물 당첨자

〈*THE CLASS*〉
독자 선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명단에서 이름과 아이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상품을 드립니다. 중복 신청이 많은 경우 원하는 상품으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님



이미화 님



박원석 님



박송림 님



임옥영 님



ju321312 님

1.
보이스캐디 레이저 골프 거리 측정기 EL1
김수진 님

2.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트래블 백
박송림 님, 박원석 님, 이미화 님,
허원영 님, 김성태 님

3.
플래티넘 미니클 멀티펜
임옥영 님, 김민영 님, ju321321 님,
백정남 님, 김종민 님

발송 안내

2023년 8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제품 입고 시기에 따라 발송일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 안내

선물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후 응모한 메일로
주소를 회신해주셔야 발송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회원 정보 기입으로 선물을
받지 못한 경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THE CLASS〉 매거진 편집부
theclass@hankyung.com



더클래스 효성

2023 Enjoy Summer Campaig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8월 12일까지
'2023 Enjoy Summer Campaign'을
실시한다. 여름철 안전 운전을 위한
무상 점검 서비스는 물론,
순정 부품 15% 할인, 여름철 소모품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MB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 수리 고객을 대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을,
서비스센터 리뷰 작성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더클래스 효성 2023 Enjoy Summer Campaign

▶ **캠페인 기간** 2023년 7월 3일(월)~8월 12일(토)

▶ **캠페인 장소** 전국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 **캠페인 혜택**

① 여름철 안전 운전을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② 순정 부품 15% & 여름철 소모품 20% 할인(엔진오일 등 일부 품목 제외)
③ MB 타이어 구매 고객 혜택 제공
- 최대 55% 할인(브랜드별 할인율 상이)
- 메르세데스-벤츠 타이어 4개 구매 시 캠핑용 폴딩 체어 증정
- 메르세데스-벤츠 타이어 4개 구매 고객 중 추첨해 샘소나이트 캐리어 증정

④ 사고 수리 고객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_샤이닝 패키지 증정
⑤ 서비스센터 리뷰 작성 고객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선착순 3,000명)
⑥ 더클래스 효성 서비스센터 첫 방문 고객 대상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_샤이닝 패키지 증정
⑦ 사고 수리 고객 대상 혜택 제공
- 사고 수리 금액대별 사은품 제공
- 자차 수리(1,000만 원 이상) 고객 자기 부담금 지원
- 출고 후 교체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 제공(2년)

※ 캠페인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센터 리뷰 작성 혜택은 고객이 직접 응모해야 하며,
기프티콘은 주 1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 예정입니다.
※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강남대로 전시장 ·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전시장 **02-575-7500**
서비스센터 **02-570-1111**



메르세데스-벤츠
안양 평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 **031-689-89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73
031-596-2600



메르세데스-벤츠
용인 수지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91-7 **031-5183-9200**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147 **031-290-3700**



메르세데스-벤츠
동탄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92
(영천동 494-13)
전시장 031-880-0200
서비스센터 031-880-0288



메르세데스-벤츠
송파 전시장 · 서비스센터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02-3434-4000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6
02-2152-3333



메르세데스-벤츠
스타필드 하남 전시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 2층
1273호
031-8072-8900



메르세데스-벤츠
청주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28
전시장 043-299-9000
서비스센터 043-299-9090



메르세데스-벤츠
천안 전시장 · 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47
전시장 041-620-7000
서비스센터 041-620-7070

"더클래스 효성이 최상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더클래스 효성
바로 가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84 효성벤츠타워
www.theclasshyosung.com

더클래스 효성 고객센터 **1899-0808**



메르세데스-벤츠
구리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구리시 한다리길 13
전시장 031-579-0900
서비스센터 031-579-0970



메르세데스-벤츠
분당 정자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7
031-786-60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65
02-3488-2400



도곡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9
02-575-734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3
02-540-7900



죽전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031-786-6100



인증 중고차 죽전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2층 **031-786-6171**



인증 중고차 하남
전시장 · 서비스센터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 188
전시장 02-3433-1999
서비스센터 02-3433-1900



인증 중고차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33,
1층 **041-555-5070**